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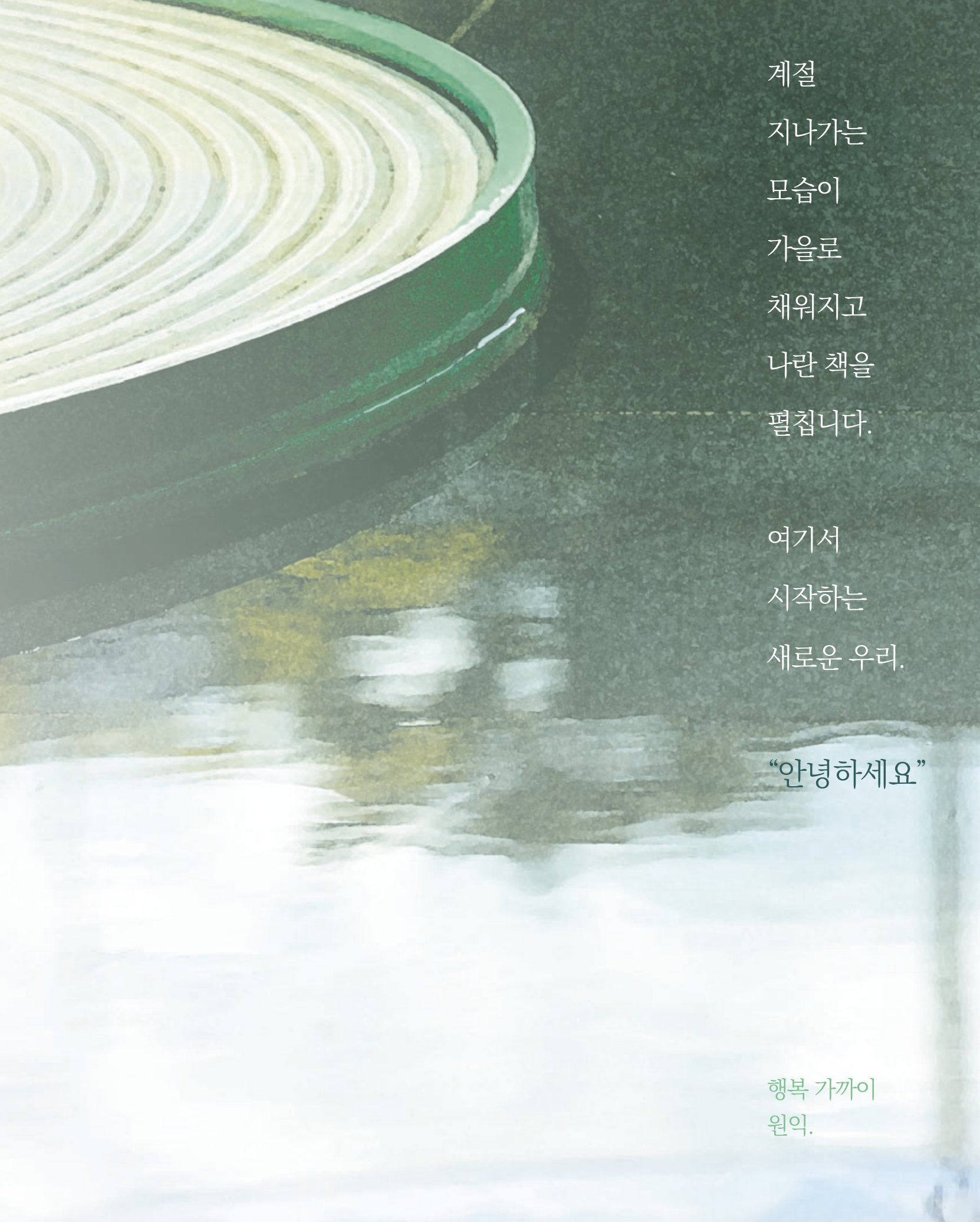
WONIKIN

AUTUMN

행복
가까이

WONIK GROUP MAGAZINE
2017 VOL.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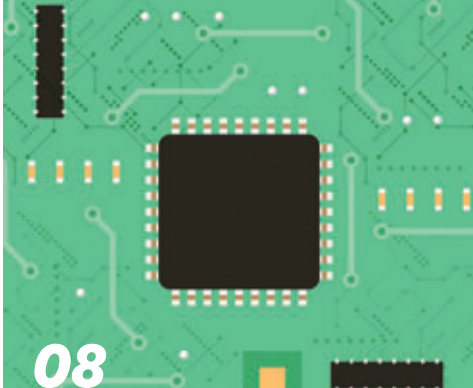


계절
지나가는
모습이
가을로
채워지고
나란 책을
펼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새로운 우리.

“안녕하세요”

행복 가까이
원익.



원익그룹 사보기자단 | 원익홀딩스 안예인 ·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원익머트리얼즈 이병섭 · 원익큐엔씨 이민희 · 테라세미콘 최예란
원익 김태원 이기복 · 원익큐브 윤세련 · 씨엠에스랩 박지현 · 위닉스 안희태
원익로보틱스 윤준호 · 원익엘엔디 조만현 · 하늘물빛정원 정세원
원익투자파트너스 윤용인 · 기획조정실 이호철 서재원

WONIK iN

WONIK MAGAZINE
#52 AUTUMN 2017

원익사보 2017년 가을호
원익인 통권 제 52호

발행일 2017년 10월
발행인 이재현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디자인연구소 퍼블페이저의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04 SPECIAL THEME

‘나’보다는 ‘우리’의 삶
그리고 여기, 행복

08 BETTER TECH

따뜻한 기술
반도체의 진화

12 WONIK WORLD

천년고도(千年古都) 서안에서
새로운 천년의 번영을 꿈꾸다
& 원익 서안법인

18 리더의 책장

양보와 배려
곧 성과로 이어진다
Book_ GIVE and TAKE



DEEP

24 BOSS VS LEADER

훌륭한 리더
우리의 상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가요?

30 WONIK HERO

스스로 엄격하게
따질 건 따지자
원익아이피에스 이병용 과장

34 밥 한번 먹어요

밥 한 술의 소통,
술 한 잔에 행복



40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큐엔씨 전형우 상무 & 김수연 대리

42 원익 덕후

즐길 준비 됐나요?
파워투나일!
씨엠에스랩 정국희 대리

46 THE WAY

생각부터 행동까지 ‘유니크’한
사람이 성공한다!
원익메트리얼즈 한우성 사장

50 한 낮의 인터뷰

자석의 양극처럼
다름으로 함께를 이루다
원익로보틱스 박현우 부장 & 김창순 사원

WIDE

58 원익은 지금 ❶ 씨엠에스랩

도약의 발판, 비상 날개
강남 사옥 이전

66 원익은 지금 ❷ 원익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하급수 기업의 업무 혁신



70 원익은 지금 ❸ 원익메트리얼즈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을 즐겨라!
원익메트리얼즈 가든파티

74 원익은 지금 ❹ 원익아이피에스

It's 행복한 출근길
The 행복한 순간

78 원익은 지금 ❺ 원익큐엔씨

나눔에서 배우는 소중한 가치
구미적십자나눔터 봉사활동

82 명작예찬

삶의 기쁨과 환희의 발산

84 NEWS FOCUS

그룹사별 주요 뉴스 포커스

‘나’ 보다는 ‘우리’의 삶 그리고 여기, 행복



<찰리 채플린>의 라이프, 그의 말로 읽는 ‘행복’

‘우리의 성공이 곧 행복이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쓰디쓴 가루약을 입에 문 듯 삼키기 어려운 문장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어진 삶이란 그런 것이다. 특히 소통의 언어로 ‘행복’을 추구하는 원익人이라면 그리 낯선 문장도 아니다. 1889년 태어나 1977년 사망할 때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배역을 통해 각기 다른 언어로 ‘행복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준 찰리 채플린. 그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불행해 하면 인생이 널 비웃을 것이고,
행복해 하면 인생이 웃음 지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인생은 너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행복의 준비조건 ‘긍정적인 마인드’

찰리 채플린의 어린 시절은 10세 때 극단에 들어가기까지 부모의 이혼, 어머니의 정신발작, 가난과 고아원 생활 등으로 이어진다. 불행한 삶인가?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쌓은 뒤에는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당하기도 했다. 이 역시 불행한 삶인가? 예상과 달리, 그는 불행해 하지 않았다. 불평이나 항의조차 없었다. 그런 채플린에게 미국은 20년 뒤인 1972년 영화아카데미 시상식에 초청해 특별상을 수여했으며, 3년 뒤인 1975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ナイト 작위를 받아 방이 15개나 있는 스위스 저택에서 여생을 자손들과 함께했다.

“불행해 하면 인생이 널 비웃을 것이고, 행복해 하면 인생이 웃음 지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인생은 너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중략) 다들 웃으세요. 웃으며 즐거움을 찾으세요.” -1972년 아카데미 특별상 수상소감 中

행복은 하나의 ‘개념’이면서 ‘감정’이다. 즉, 철저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이다. ‘행복한가?’ 혹은 ‘불행한가?’에 대한 답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사로부터 “김 대리, 점심 후에 커피 가지고 사무실로 와~”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커피 심부름’인가? ‘맨투맨 소통’인가? 채플린은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한다. 긍정의 힘, 그것이 바로 행복의 준비조건이다.

‘나의 꿈’을 실현해줄 ‘조직’ 속에서 행복은 시작된다.

1913년은 채플린 인생의 시작점이 된 해였다. 혈령한 바지와 작은 중산모, 커다란 구두와 짝 끼는 양복저고리, 그리고 콧수염과 지팡이를 든 캐릭터가 탄생한 것이다. 여기서 말을 끊으면 그저 ‘데뷔한 해’ 정도가 될 것이다. 진정 1913년이 중요한 이유는, 특유의 캐릭터 분장을 하고 키스톤 영화사의 맥 세네트를 만났으며 결국 영화사와 출연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영화사가 채플린의 비전을 믿고 무대를 제공한 결과, 세기의 희극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 1913년은 무대 위에서 채플린의 행복이 시작된 첫해였다.

“난 이 캐릭터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막상 분장을 마치자 나는 그 캐릭터가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무대에 오르자 비로소 나의 캐릭터가 완전히 태어났다.” -채플린의 자서전 中

입사 첫날의 비전과 꿈을 기억하는가? 나를 믿고 지지해준 ‘조직’이 있기에 우리는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었다. 아직 행복이란 계단에 첫 발을 내딛지 못했다면, 당시의 꿈을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지 못한 탓이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조직의 성장은 더 큰 무대에 오를 기회를 제공한다. ‘초심’을 기억하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행복은 이미 우리의 발 밑에서 꿈틀대며 진한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도전’ 그리고 ‘희망’은 행복의 다른 표현이다.

1952년 채플린은 <살인광시대>의 실패를 딛고 <라임라이트>라는 영화를 발표한다. 광대의 슬픔을 담담하게 그려낸 이 영화는, 흥행을 떠나 지금까지도 평론가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작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장기인 풍자나 비판이 아닌 순수 멜로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점, 메인 테마곡인 ‘테리의 테마’를 직접 작곡했다는 점, 라이벌인 버스터 키튼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 대중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이다.

“인생은 두려워하지만 앓는다면 정말 멋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용기와 약간의 상상력, 그리고 구질구질하지 않을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된다.” -1952년 <라임라이트> 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가짐, 좌절이 아닌 희망을 안고 성장을 이어가는 자세. 그것이면 충분하다. 도전과 희망은 행복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행복, 그대로의 행복이다. 1969년 재상영한 영화 <서커스>에서 채플린은 오프닝 OST를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내려다보고만 있다면 절대 무지개를 찾지 못할 겁니다’고 노래한다. 도전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고 있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무지개는 이미 하늘 위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불변의 행복강령 1조 1항은 ‘소통’이다.

1931년 상영한 <시티 라이트> 촬영장에는 처칠이 직접 방문했으며, 개봉 일에는 아인슈타인이 참석했다. 1936년 상영한 <모던 타임즈>는 처칠과 마오쩌둥으로부터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예술가의 창조적 극찬물’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채플린은 간디와 샤르트르, 피카소, 루즈벨트, 서머셋 모뎀, 버나드 쇼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채플린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설명하는 골든 키워드는 ‘인간관계’였던 것. 1952년 누명을 쓰고 박해를 당할 당시에도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재기할 수 있었으며, ‘인간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술인으로 평가받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돕길 원한다. 인간 존재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에 의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채플린 어록 中

행복은 ‘관계’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나아가, 나의 행복은 누군가에게도 행복이 되고, 누군가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통’이라 말한다. 더욱이 그룹으로 하나 된 원익인이라면, 소통은 행복을 완성하는 골든 키워드임이 분명하다. ‘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삶, 끊임없는 소통으로 활기찬 하루하루를 가꿔보자. 행복한, 행복을 가꾸는, 행복을 나누는 원익인을 바라본다. **W**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돕길 원한다.

인간 존재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에 의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BETTER TECH

따뜻한 기술 반도체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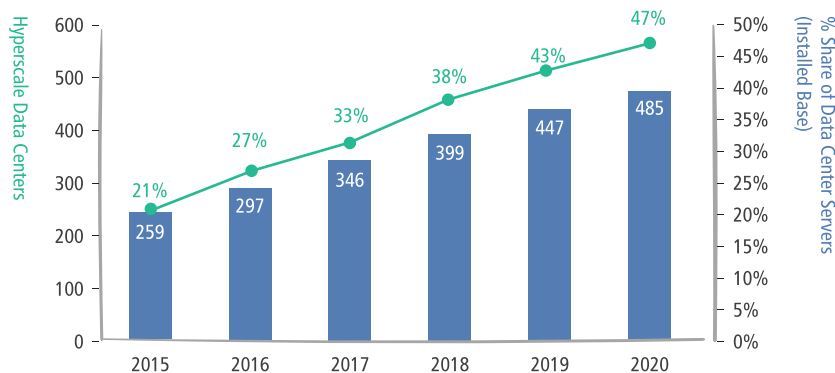
몇 년 전만 해도 기계와 대화를 나누는 건 꽤 낯선 일이었다. 미리 정해진 대로만 말해야 했고, 그 결과물 자체도 충분치 못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슈퍼히어로를 돕는 만능 비서 ‘자비스’나, 또 다른 영화 ‘그녀’에서 주인공을 사랑에 빠지게 한 ‘사만다’를 기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사람들은 일방적인 전달보다 자연스러운 대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네오 인터페이스 시대

기계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올해 초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는 ‘네오 인터페이스 시대’를 선언했다. 네오 인터페이스는 인간이 말하듯이 자연어로 기계와 완벽한 대화에 나서면서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뜻하는데, 기존 마우스나 키보드, 웹, 앱(애플리케이션) 등과 달리 음성과 눈짓으로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기존의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자율주행차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이 인공지능 기술에 힘입어 완벽한 기계와 인간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셈이다.

미세공정의 시대

모든 것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으로 학습된다는 것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1분 동안 70만 개의 페이스북 상태(status)가 업데이트되고, 1.7억개의 이메일이 전송되며, 1,820 테라바이트(1TB=1,024GB)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사용량 폭증은 관련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아마존은 이미 대부분의 이익을 클라우드 사업에서 거두고 있으며, MicroSoft,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데이터센터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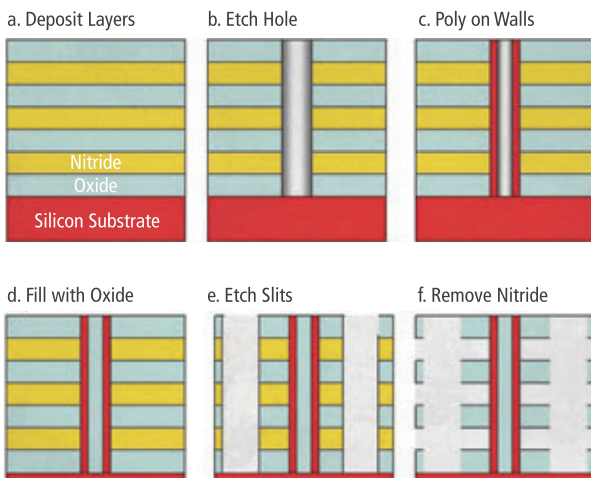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증가
Cisco Global Cloud Index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스토리지(Storage) 용량은 2015년 382EB로 추정되며, 2020년 1.8ZB로 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중 77% 정도가 데이터센터 내에 보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장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내 저장된 데이터의 양은 2015년 171EB에서 2020년 925EB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빅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5%에서 27%로 가장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기기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은 데이터센터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5배가량 증가할 것이다. 2020년에 거의 1ZB의 데이터가 데이터센터 내에 저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3ZB의 데이터가 데이터센터 외 기기에 저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증하는 Data Traffic이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저장 용량의 증가도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반도체 기술까지 흔들어놓고 있다. 최근 서버용 메모리 시장은 HDD(Hard Disk Drive) 대비 경쟁우위가 확실한 SSD(Solid State Drive)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SSD는 HDD 대비 절반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며, 속도는 30% 빠르고, 열 발생도 거의 없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의 구조상 몇 년이 지나면 이 가격 차이를 충분히 비용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SSD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3D NAND를 사용한 SSD의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3D NAND 채용이 고려되고 있어, 이는 많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서둘러 기술 확보 및 양산 투자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반도체의 높은 처리 성능을 요구함에 따라 2D NAND 증설 없이, 신규투자는 3D NAND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3D NAND는 2D NAND가 평면으로 배열하던 것을 원기둥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후에 쌓인 기둥들을 배열하는 형태로, 증착공정의 횟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증착공정이 진행되며 두꺼워진 층에 구멍을 뚫거나 특정 층을 제거하기 위한 식각공정의 난이도와 횟수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즉, 증착공정의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소재의 양이 그와 비례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초미세화가 진행될수록 반도체용 소재 기업과 반도체 제조사 간의 협업이 중요해진다.



3D NAND 공정흐름도

발걸음 빨라지는 소재기업

소재의 발달은 반도체의 진화를 이끌고 있다. 반도체는 웨이퍼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트랜지스터와 전자소재들로 생산해내는 미세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완성품이다. 이러한 반도체 회로 위에 여러 화합물을 균일하게 증착하는 유기금속화합물이 반도체용 프리커서(전구체)이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 화합에 따라 안정적이고 균일한 박막 형성이 중요해졌고, 프리커서 사용량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프리커서 시장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상적인 프리커서가 드물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아 국산화 초입단계에 머물렀으나, 최근 원익머트리얼즈가 미국 노바켄을 인수하며 3D NAND 향 HCDS(Hexa Chloro Di Silane) 공급에 나서, 국내 업체들의 전구체 시장 진출에 힘을 실고 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실리콘(Si) 기반의 전구체인 HCDS, 3DMAS(Tris dimethyl Amino silane), BDEAS(Bis diethyl amino silane)와 지르코늄 기반의 고유 전계 프리커서(High-k) Cp-Zr를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방향성은 변함 없다. 영화 속 ‘자비스’나 ‘사만다’와 같은 음성인식 비서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까지 앞으로 몇 번의 반도체 이야기를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일수록 기계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질 것이며, 때문에 반도체의 높은 처리 성능이 요구된다는 기본 골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W**

HCDS(Hexa Chloro Di Silane)는 실리콘 원자(Si) 2개와 염소 원자(Cl) 6개로 결합된 화학식 Si_2Cl_6 의 비극성 화합물이다.

글. The SEMICON Magazine 손수란 기자
자동화 산업 전문가로 활동 하였으며 현재 반도체 산업 전문 잡지 The SEMICON magazine을 진행한 다. The SEMICON magazine은 반도체 산업 전시회 SEMICON Korea와 SEDEX의 미디어 파트너로, 기업과 기업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천년고도(千年古都) 서안에서



새로운 천년의 번영을 꿈꾸다

수도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경제·문화의 집약체다. 수도의 오래된 성(城)과 탑, 사원과 무덤은 역사문화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시대를 살아간 인간의 애정 담긴 기억의 저장고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왕조들의 수도가 됐던 곳, 서안(西安, Xi'an)은 그래서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장소다.



- 1 실크로드의 시작점, 현재 서안 거리의 풍경
2, 3 진시황이 사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병마용의 모습

관중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서안은 중국 고대국가인 주나라 무왕이 건설한 호경(鎬京)에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한·당나라에 이르는 천년 동안 국도(國都)로 번영하며 우리에게 장안(長安)이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수도가 지녀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서안은 이에 뛰어난 조건을 가졌다. 서안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예로부터 관중(關中)이라 칭했는데, ‘관중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처럼 난공불락의 천연요새가 길게 뻗어 있고 토지가 비옥해 물자가 넉넉했다(金城千里 天府之國). 한나라 창업주인 유방이 초나라 항우와의 치열한 통일전쟁에서 이기고 한 뒤 관중에 수도를 정하고 ‘오래도록 평안히 다스린다’는 뜻을 담아 ‘장안(長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 이름 덕분인지 옛 장안은 오래도록 영화로운 도시로 명성을 떨쳤다.

서안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때부터다. 실크로드가 서안에서 출발해 유럽의 로마에 도달하면서 한쪽은 파스 시니카(Pax Sinica), 다른 한쪽은 파스 로마나(Pax Romana)가 열렸다. 과거 동서 교역로였던 실크로드는 현대에 와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의 약칭)’란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는데, 서안이 그 중심도시에 있음은 물론이다. 옛날 비단을 싣고 떠난 대상(隊商)들의 행렬이 지금은 서안에서 출발하는 국제열차가 중국 각지에서 온 상품들을 싣고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내달리는 것이다.



1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서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황제(始皇帝)다. 시안시 린통구에 있는 그의 무덤 진시황릉, 그리고 진시황릉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병마용갱은 거대한 야심이었던 시황제 도 죽음 앞에서 한없이 두려운 인간이었음을 증명한다.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에 의하면, 진시황릉에는 세상의 값진 진귀한 것들로 넘쳐나고 위로는 천문(天文)을, 아래로는 지리를 재현했다고 적었다.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자동 발사 장치가 딸린 활을 설치했다고 한다. 진시황릉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병마용갱은 1974년 발굴 당시 8,000여 점의 병사와 500여 필의 말이 발견됐다. 지상에서 건설한 자신의 제국을 사후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욕망이 아니었을까. 무병장수를 꿈꾸며 영원한 제국의 황제가 되고자 했던 그였지만, 희망과는 달리 진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했다. 일찍이 “짐은 최초로 황제가 되었으므로 시황제라 칭하고, 후세는 이세(二世)·삼세(三世)로 이어져 만세에 이르기까지 전해지도록 하라”고 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만세는커녕 고작 삼세에서 끝나고 만 것이다.

반면에 진나라 이후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는 400년 넘게 이어지며 오늘날 중국문화의 토대를 닦았다. 한나라의 대표적인 궁전인 미양궁(未央宮)은 천자의 위엄을 상징하며 천년 넘게 당당한 위용을 자랑했는데, 미양궁 앞에서 장안성 서문 중 개원문(開遠門)으로 나아가 당시 서역(지금의 중앙아시아)으로 가는 길이 놓였으니 실크로드의 기점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동서양 최고의 궁전이라 불렸던 미양궁이 건립될 때 유방과 그의 신하 소하의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한다.



2



3

유방이 중국 통일 이후 반군들을 제거하려고 출정을 떠난 사이 소하는 서안 교외에 미양궁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직전에 또 하나의 궁전인 장락궁(長樂宮)을 완공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사일 수 있었는데, 아나나다를까 유방은 미양궁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났다.

“천하가 아직 뒤숭숭한데 어찌 이런 큰 궁궐을 짓는 것인가?”

“아직까지 천하가 평온하지 않기 때문에 궁궐을 짓는 것입니다. 무릇 천자는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는 법입니다. 따라서 크고 화려하지 않으면 천자의 위엄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후세에도 이보다 웅장한 궁궐을 지을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화려했던 세계적인 국제도시

서안의 명성은 당나라 때 가장 두드러졌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된 서안은 남북으로 뻗은 주작대가(朱雀大街)를 중심축으로 하여 동서 9.7km, 남북 8.6km 규모에 달하는 성벽 안에 바둑판 형태로 구획되어 있었다. 당나라 때에 중국 총인구가 1,500~1,800만 명 정도였는데, 이때 150만 명을 헤아리는 인구에 외국 사신들의 수가 4천여 명이 넘었다니 얼마만한 위상을 가진 도시였는지 상상조차 어렵다. 당나라 황제가 거주했던 대명궁(大明宮)의 경우 현재 유적지로만 남아 있는데, 둘레가 7.628km에 면적은 3.2km²에 달해 베이징 자금성의 4.5배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나라 중기 문인인 왕유(王維)는 이렇게 시로 노래한 바 있다.

“구궁궁궐 궁문이 열리면 만국의 사신이 황제에게 절을 올린다.”

〈和賈至舍人早朝大明宮之作〉

당나라 이후 중국 통일 왕조들은 서안을 수도로 삼지 않았다. 각 왕조들의 정치성, 정통성에 따라 수도 위치 역시 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번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말년에 이르러 수도를 남경(南京, Nanjing)에서 서안으로 옮기려고 한 적이 있었다. 감찰어사였던 호자기(胡子祺)가 “천하제일의 지세는 관중(關中)”이라고 상서를 올리자 황태자를 보내 서안 지역을 자세히 살펴 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듬해가 되자 황태자가 급서를 하게 되고, 큰 충격을 받은 주원장은 없던 일로 덮어버린다. 만약 서안이 명나라의 수도가 됐더라면, 서안이 오늘날 현대인에게 전하는 문화유산은 더욱 풍부해졌을 것이다.

일찍이 사마천은 “관중의 인구는 3/10에 불과하지만, 부는 6/10을 차지한다”고 했다. 오늘날 서안은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 사업의 핵심도시이자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의 중추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천년 수도였던 서안이 다시 천년이 지나 다시 한 번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거리와 문화유산을 가진 서안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진다.





©Aaron Zhu

장안대로 쪽에서 바라본 서안성의 고루



©新居

당 고종은 어려서 여원 어머니 문덕황후를 기리기 위해 세운 대자은사의 대안탑(大雁塔)

무릇 천자는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는
법입니다 ... 후세에도 이보다 웅장한
궁궐을 지을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时雨

터만 남은 미양궁의 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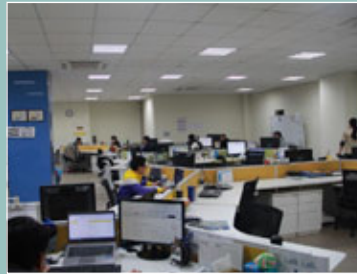
원익 서안법인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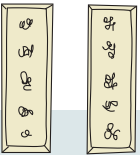
원익그룹의 핵심가치인 열린 사고(자유),
커뮤니케이션(소통), 즐거운 일터(행복)가
현실로 펼쳐진 곳, 바로 원익 서안법인이다.

2013년 3월에 설립된 원익 서안법인은 원익 Materials, 원익QnC, 원익아이피에스, 원익 Holdings 등 반도체 관련 4개 계열사가 입주해 있다. 당시 중국 서안 지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건설됨에 따라 반도체용 특수가스와 CVD/Metal 공정용 생산설비 등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했다. 현재까지 총 2,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원익 Materials의 경우 2011~2015년 매출 연평균 성장률(CAGR)이 31%에 이르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삼성반도체 협력사 중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올해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서안법인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한국인 18명, 중국인 63명 등 모두 81명이다. 한국과 다른 중국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마인드로 화합에 힘쓰고 있고, 직원 간 분위기와 작업 환경, 안전 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어 근무 만족도와 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이직률이 낮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서안법인 관계자는 “현지 진출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과의 공존 노력, 그리고 이를 넘어선 통합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현지 근로자와 평화롭고 행복하게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며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현지인이 문제없이 잘 어울리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며,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W**





서안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화청지

현존 최대규모의 황실 정원으로, 양귀비와 당 현종이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다. 양귀비가 목욕을 즐겼다는 수온 43도의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있다.



진시황릉

진나라 시황제의 무덤으로써 아직까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고 여러 함정들의 비밀이 있어 잠정적으로 발굴이 보류된 곳. 입구까지만 살펴 볼 수 있다.



회민거리

종로 뒤쪽 소수민족의 전통 요리를 비롯해 다양한 꼬치 요리 등을 맛 볼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그 중 꼭 먹어봐야 할 인기 음식이 뉴앙파오모와 베이징 양미엔이다.



병마용박물관

병마용이란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을 가리키는데, 불멸을 꿈꾼 시황제가 사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건설했다.



종루 · 고루

명나라 때에 건축된 것으로 서안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고대 건축미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대당부용원

시따제에서 가까운 곳에 당나라 시대를 재현해 놓은 테마공원. 바다같은 호수에 인공폭포, 웅장한 건축물과 조각품, 뮤지컬과 사자춤, 서커스 공연도 볼 수 있다.

GIVE and TAKE

양보와 배려 곧 성과로 이어진다



요즘 같은 무한경쟁, 승자독식 사회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통념에 따르면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바로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 결정적인 타이밍, 추가로 성공의 네 번째 요소를 ‘타인과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Taker)이나 받는 만큼 주는 사람(매처, Matcher)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Giver)’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 즉 강하고 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승자 독식’의 근본 명제를 뒤집습니다. 또, 착한 사람은 이용만 당할 뿐 성공하기 어렵다는 불문율을 깨뜨리며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를 돕고, 지식과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며,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 즉 Giver가 성공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례와 분석, 빈틈없는 논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모셨던 존경하는 상사분께서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항상 “Give & Take” 방식을 머리에 담고 일을 해라. Give가 먼저다! 다음이 “Take를” Give를 먼저 해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Give & Give & Take” 를 해라. 정말 그 분은 이런 생각을 몸소 실천하셨고, 아직도 현역 최고위치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남는 장사라는 참 진리를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Give가 먼저
Take가 다음!
먼저 give 해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give & give & take...

하윤희 부사장의 탁월한 초이스

Give and Take

애덤그렌트 저 / 윤태준 역 / 생각연구소 출판



저자소개

애덤 그랜트 Adam M. Grant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저술과 연구 활동에 힘입어 서른한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교수로 임명되었다. 그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새롭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4년 연속 ‘최우수강의평가상’을 받았다. 비즈니스위크 선정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교수’, MBA 컨설팅 사이트 포잇츠앤드퀀츠Poets and Quants가 뽑은 ‘마흔 살 이하 세계 40대 경영학 교수’, 세계경제포럼 선정 ‘젊은 세계지도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25인’ 등으로 손꼽힌다. 미국 심리학회와 경영학회,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에서 각각 ‘젊은 학자상’과 ‘우수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영향력 있는 인력관리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가장 생산성 있는 심리학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의 영향력은 학계를 넘어 경영계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가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기업 및 단체로는 구글, 골드만삭스, 디즈니 픽사, 세계경제포럼, 유엔, 미국 육군과 해군, 미식축구연맹(NFL) 등이 있다. 《오리지널스》에서 그는 내면의 독창성을 발휘해 자신의 삶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학계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 차별화된 통찰을 통해 상식과 통념에 반하는 특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인다. 그의 첫 번째 저서 《기브앤테이크》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27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아마존, 애플, 파인애플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



베푸는 것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착한 사람의 실패 사례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을까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는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푸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수입이 평균 14퍼센트 적고,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두배 높으며, 실력과 영향력은 22퍼센트 낮게 평가받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적자생존과 무한경쟁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신에 심리학자가 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주제의 책[기브엔 테이크]가 유쾌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베스트 셀러 순위에서 한 때 아마존 종합 3위, 뉴욕타임즈 2위까지 올랐고, 국내 번역본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 책의 미덕은 수없이 많은 실증 분석과 사례를 통해 그동안 과소평가되어온, 베푸는 삶의 성공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보여준 데 있습니다. 저자 애덤그랜트 교수는 2011년 29세의 나이에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교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포춘지는 그를 40세 이하 세계 톱 비즈니스 교수 40인 중 1명으로 꼽았고, 비즈니스위크는 올해의 인기교수로 선정했습니다. 그는 최근 2년간 학부 강의 평가에서 수강생 80여명 전원으로부터 4.0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가 쓰는 독특한 용어부터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는 사람에겐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받은 것 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기버(giver)와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테이커(taker), 그리고 받은만큼 되돌려주는 메처(matcher) 이 세가지 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기버는 꼴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테이커는 사람을 이용하고 기버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해버려 결국 녹초가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기버는 흔히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 맨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다리 맨 위도 역시 기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버가 꼴찌를 할 뿐만 아니라 일등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을 성공하게 만드는 정말 많은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랜트 교수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적이 나쁜 영업사원들의 ‘기버지수’는 실적이 평균인 영업사원들보다 25퍼센트 더 높았는데,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들의 기버 지수도 평균보다 높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최고 영업 사원은 기버였으며 테이커와 메처보다 50퍼센트 높은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W**



DEEP

24

BOSS VS LEADER

훌륭한 리더
우리의 상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가요?

30

WONIK HERO

스스로 엄격하게
따질 건 따지자
원익아이피에스 이병용 과장

34

밥 한 번 먹어요

밥 한 술의 소통,
술 한 잔에 행복

40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큐엔씨 전형우 상무 & 김수연 대리

42

원익 덕후

즐길 준비 됐나요?
파워투나일!
씨엠에스랩 정국희 대리

46

THE WAY

생각부터 행동까지 '유니크'한
사람이 성공한다!
원익머트리얼즈 한우성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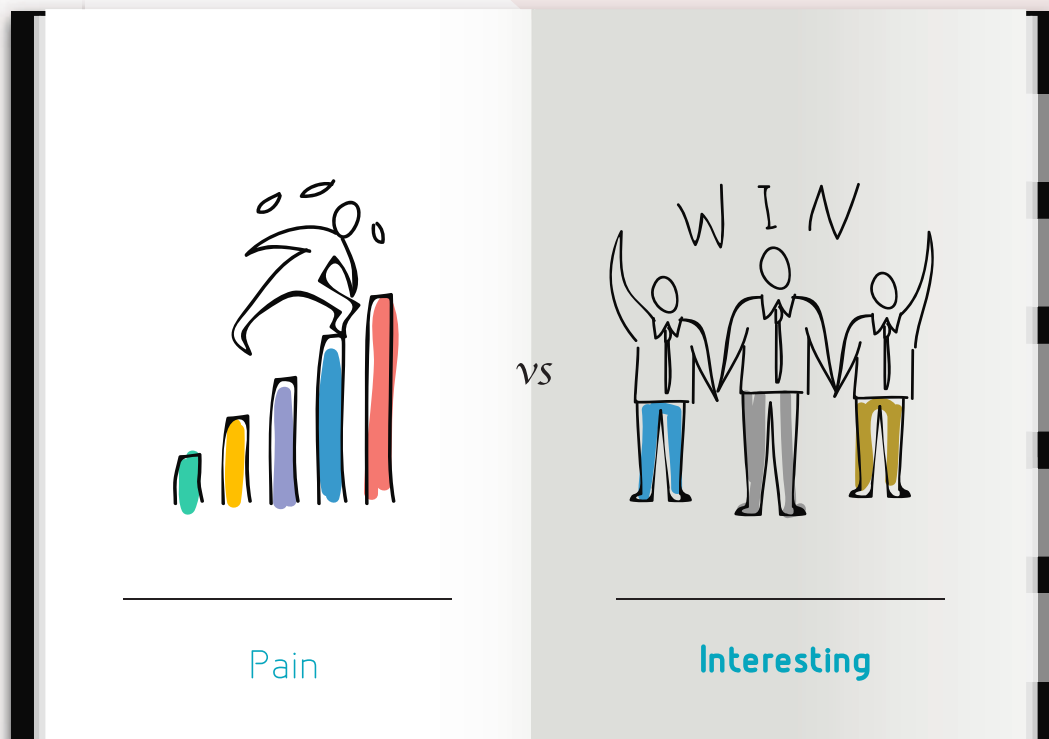
50

한 낮의 인터뷰

자석의 양극처럼
다름으로 함께를 이루다
원익로보틱스 박현우 부장 & 김창순 사원

훌륭한 리더

우리의 상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가요?



**보스는 일을 힘겹게 만들고
리더는 일을 즐겁게 만든다.**



훌륭한 리더는 위험이 있을 때 앞장서지만,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는 뒷전에 선다.
주변 사람들의 협력을 원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라.
겸손하게 행하라.

_ 넬슨 만델라



Command

VS



Ask

Asks

Leader

Boss

**보스는 명령하길 좋아하고
리더는 의견을 묻는다.**



일하는 즐거움을 알려준 이 팀장의 하루

명령하는 보스와 함께하는 리더

No.1 Leader

명령을 통한 강행군으로 하루하루의 업무를 진행하는 ‘보스’는 개인적인 명성은 높을 수는 있어도 팀 내부적으로 갈등과 불만이 쌓여 업무능률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반면,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응원과 격려로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리더’는 팀 내 화합과 사기는 물론이며 업무능률 역시 높다. 이런, 이 팀장이 이끄는 영업3팀의 하루를 통해 ‘보스’가 아닌 ‘리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보스와 리더, 과연 원익인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vs leader

리더는 아침인사부터 다르다!

신선한 바람과 맑은 햇살이 훑날리는 이른 아침, 회사로 들어서는 많은 사람 중에 유독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최 사원. ‘너무 일찍 왔나? 잊은 건 없겠지?’ 신입사원의 출근길은 언제나 낯설고 긴장의 연속이다.

“좋은 아침! 일찍 왔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흠칫 놀란 최 사원은,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돌아본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이 팀장을 발견하곤 “안녕하십니까” 허리를 90도로 접어 인사하는 최 사원. “시간도 이른데, 커피나 한 잔 할까?” 긴장을 느낀 듯 이 팀장은 자연스레 최 사원을 자판기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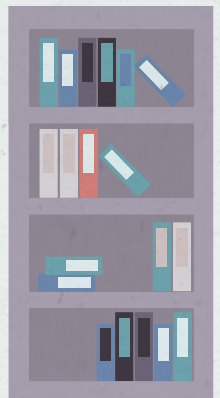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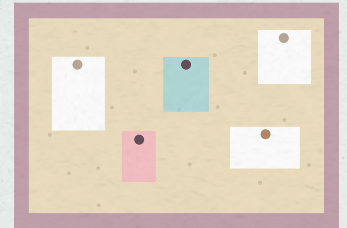
최 사원과의 짧은 티타임을 가진 이 팀장은 사무실에 들어서며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건넨다. 팀원들 역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받는다. 이 팀장을 따라 사무실에 들어선 최 사원은, 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이전 회사의 아침풍경을 떠올린다. ‘왜 이제 왔어?’ ‘결재서류 가져와!’ ‘거래처는 전화해봤어?’ ‘좀 빠릿빠릿하게 못해’ 출근과 함께 시작되던 만성두통은 더 이상 없겠구나, 생각하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 최 사원.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인지 고백인지 모를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결과에 집중하는 보스, 과정을 독려하는 리더

분기별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 팀장과 유 과장은 대회의실을 찾았다. “오늘도 역시 영업3팀의 성과가 눈부시네요. 다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는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낸 이 팀장과 팀원들을 향한 격려의 박수로 시작됐다.

전체회의에 이어 간부회의가 진행되었기에, 유 과장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그를 동기인 차 과장이 잡아 세운다. “비결 좀 알려줘! 어제도 밤새고 왔는데, 우리 팀은 성과가 안 나네. 팀장님 눈치 보라, 마누라 눈치 보라. 죽겠다, 아주~” 투덜대는 동기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우리 팀도 작년까진 회사의 눈칫밥 먹는 거 잘 알잖아~” 위로의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유 과장은, 사무실로 돌아오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본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중에, 팀장마저 바뀌게 된 3년 전의 일이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에, 팀장은 성과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화를 내기는커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고,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기보다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 좋은데요. 와~ 글씨체가 멋지네. 컴퓨터 박사셨군요” 격려 섞인 농담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물론 성과가 없어 회사의 눈칫밥 먹는 일은 계속됐다. 그저 팀의 분위기만이 달라졌을 따름이다. 지각을 밥 먹듯 하던 김 대리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칼퇴근을 노래하던 박 대리가 퇴근을 마다하면서 업무량을 늘렸다. “이상하죠, 일하는 게 즐거워요” 박 대리만이 아니었다. 콧노래가 들리지 않을 뿐 팀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곤 작년 초, 영업3팀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며 매출증대의 큰 역할을 해냈다. 이후 팀은 진행하는 사업마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며 사내 ‘최고의 팀’으로 불리고 있다.



문제점에 집중하는 보스, 해결점을 모색하는 리더

회의실에 모여 앉은 팀원들의 표정이 심각하다. 지난 밤, 김 대리의 실수로 납품 기한이 늦춰져버린 것이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김 대리의 귓가에 이 팀장의 목소리가 스며든다. “미안하면, 나가서 달달한 음료 좀 뽑아주세요~” 고개를 들자 미소를 머금은 이 팀장의 표정이 눈에 들어온다.

긴급회의는 문제의 책임여부가 아닌 해결방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우선 각자 맡은 업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생각해봐요” 이 팀장의 주도 하에 팀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가감 없이 주고받는다. 방안이 마련된 뒤에는 빠르게 실행에 나선다. 우선, 이 팀장은 문제가 된 거래처를 찾아가 일정을 조율하고, 유 과장은 재고가 남은 다른 거래처에 양해를 구한 뒤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차후 직접 배송을 통해 찾아낼 것을 약속한다. 박 대리는 당장 물건이 시급한 곳에 우선 제품을 보내고, 최 사원은 김 대리를 도와 필요한 서류를 발 빠르게 작성해 행정상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킨다. 이처럼 팀원 모두가 하나 되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 결과, 실수는 오히려 거래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 된 뒤, 김 대리는 위로의 차 한 잔을 건네는 박 대리에게 “예전 회사에선 이것보다 훨씬 사소한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팀장은 모든 책임이 너한테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라는 둥 했었지”라며 “난 이 팀장이 있는 우리 회사에 뼈를 묻을 거야, 두고 봐!”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이 팀장이 이끄는 영업3팀은 오늘, 신입사원을 맞이하고 성과 우수 팀으로 박수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업무상의 실수로 큰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하루지만, 영업3팀의 퇴근길은 보람되고 즐겁기만 하다. 그들의 중심에는 ‘보스’가 아닌 ‘리더’, 이 팀장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W**



‘리더’를 찾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팀, 각 부서의 리더를 추천해주시면 사보를 통해 재미나고 의미 있게 각색해 드립니다.
‘우리 OO님이야 말로 리더지!’ 확신이 들면, 주저 말고 추천해주세요. 머뭇거리다 다른 부서에게 놓칠 수 있어요!

**선정된 분께는 스타벅스 상품권 10만원,
추천해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원익 기획조정실 서재원과장
jwseo@wonik.co.kr 031-8038-9009
피플페이지 사보담당자
people_page@naver.com 02-6674-7845



“팀원들의 고생도 많았지만, 회사 전체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관리혁신부문 원익인상을 수상한 이병용 과장은 이른 아침 중국어를 배우며 자기혁신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곤 수상의 영예를 팀원과 회사에 돌린 것처럼, 자신의 발전을 팀과 회사에 고스란히 전하며 최고의 팀, 최고의 회사를 꿈꾼다.

스스로 엄격하게 따질 건 따지자 최고의 명성에 걸맞은 원익아이피에스를 만들 것

이병용 과장

원익아이피에스

(품질보증팀)

- 관리혁신 부문 수상 -



자신에게 엄격하게, 따질 건 따지자!

2006년 입사 후 품질관리팀에서 SMC P 파트장으로 근무하며, 품질관리체계 및 예방품질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만, 원익인상 수상은 원익아이피에스 각 부서 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원들의 고생도 많았지만, 품질이라는 것은 한 부서의 결과물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품질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행·용·훈·평. 삼성에서 말하는 최고 경영자의 덕목이죠.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알고(知), 행하고(行), 사람을 쓰고(用), 가르치고(訓), 평가하는(評)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 ‘스스로 엄격하게 따질 건 따지자’는 것이 저의 주관입니다. 나 자신과 타협하게 되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과 타당성, 근거를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는 자세를 자신에게 강조하곤 합니다. 더욱이 품질업무라는 것이 무언가 정해진 일을 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고민을 항상 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민의 결과를 타부서 혹은 공급사에 적용하고 실행에 옮기게끔 해야 하므로 스스로 엄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행·용·훈·평’이란 문구를 수첩 제일 앞 장에 적어놓고 수시로 되새기곤 합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행복한 팀

제가 속한 품질보증팀은 회사의 Rule을 정비해 현실화/최적화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Monitor 하며, 공급사의 품질을 같이 책임지는, 말 그대로 회사 전반의 품질을 보증하는 팀입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 할 땐 분업화를 통해 확실하게 처리하고, 쉴 때는 함께 쉴 수 있는 손발이 제법 잘 맞는 단합된 팀이죠.

품질 향상을 위해선 모든 파트에서 품질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조는 제조에서의 품질, 설비는 설비에서의 품질이 있습니다. 품질은 우리 팀만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당사의 Rule을 재정비하고 있고, 올해는 실행점검을 통한 Rule 준수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품질 마인드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품질 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인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팀은 회사의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W/S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W/S를 계기로 선진사에 버금가는 품질 수준과 품질 마인드로 중무장할 것입니다. 이로써 각 부분에서 ‘최고’ 명성에 걸맞은 원익아이피에스를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팀의 목표이자 저의 비전입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을 볼 때, 행복하다

아침 7시 30분부터 외국어(중국어) 입문 교육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현재 SMC P 파트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침 메일 확인부터 회의참석, 팀원의 자료 리뷰, 타 부서와의 의견 조율 등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업무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원익인상을 수상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각 팀장 및 파트장이 사장님을 모시고 당사 품질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품질회의’를 진행합니다. 이현덕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후 첫 품질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 고생해서 만든 자료에 대해 칭찬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한 우리의 업무, 즉 품질개선 활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품질향상은 각 부분이 협업해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업무 추진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업무를 추진하고 그 성과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은 테라에 계시지만 사원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큰 틀을 잡아주었던 서태욱 부사장님,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하윤희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우리 팀에 합류해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준 팀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편적인 부분 부분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었고, 유관부서에서는 품질 개선 활동에 동참하기 보다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때 팀장님께서 합류하셔서 회사 내 품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팀장님과 더불어, 항상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파트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팀원들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을 서포트한 결과가 원익인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품질업무가 단독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도움을 주신 여러 유관부처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W**





밥 한 번 먹어요

밥 한 술의

소통,

술 한 잔에

행복



“반갑습니다. 식사는 뭐로 할까요?” “여기 스테이크 정식이 유명하데요” 서로에게 명함이 아닌 메뉴판을 건네며 악수가 아닌 환한 미소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이날 함께한 여섯 명의 남성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미팅이 아닌 그저 ‘밥 한 끼’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다.

원익을 비롯해 원익머트리얼즈와 씨엠에스랩, 원익큐브 등 친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 조금은 어색할 법도 한데, 끓이지 않는 수다와 웃음으로 화기애애한 식사를 함께한 원익人들. 특히 ‘영업’이란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며 행복을 나눈 그 날의 특별한 시간을, 정다운 한 끼를 담아보았다.



<명인의 제자 : 도제 >
판교사육 인근 일식집

한 그룹의 가족이지만
기회가 없어 인사조차
쉽게 나누지 못하는 우리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계열사의 임원들과는 자주 만나지만 일반 사원들과는 함께할 기회가 없거든요. 더욱이 밥을 함께 먹으며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 신선한 기분입니다.” 박창열 전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건넸다. 함께 나온 원익머트리얼즈의 김선우 과장 역시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좋은 소통의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며 인사를 했다. 박소명 사원은 “참석한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전무님과 밥을 먹기도 힘든데, 계열사 분들과 함께 밥을 먹다니 팬스레 설레고 기뻐요”라며 함께한 소감을 밝혔다. 반면, 원익큐브의 류찬하 사원은 “사실 류현희 과장님과 원장호 과장님은 야구 동아리를 통해 자주 뵈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원익인들끼리 모여서 야구 동아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기분이 새롭고 더 반갑습니다”라며 “설렌 마음에 메뉴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왔어요. 더블 스테이크 덮밥이 유명하더라고요.”라며 함께한 이들에게 메뉴를 추천하기도 했다.

밥 한술에 수다와
웃음을 반찬 삼아

“씨엠에스랩은 강남으로 이전하니까 어때요? 주차장이 좀 좁다던데, 괜찮아요?” 원익 Lighting팀의 원장호 과장의 질문에 모든 이의 시선이 류현희 과장에게로 모여들었다. 최근 판교 사옥에서 강남으로 이전한 씨엠에스랩에 대해 모두 궁금했기 때문이다. “강남으로 이전해서 업무 환경이 좋아졌어요. 판교사옥도 좋지만, 코스메틱의 특성상 강남이 일하긴 좋죠. 주차장 문제는 공용주차장을 사용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밥이 맛있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너털웃음을 짓는 박 전무는 “과장님들의 경우는 원익 이전에 입사해서 자연스럽게 원익인이 됐겠지만,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은 ‘원익’을 알아보고 입사를 지원했을 텐데요. 지원하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나요?” 질문을 건넸다. 사실 밥상이 아니었다면 무거울 법한 질문이지만,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던져진 질문이라, 모두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먼저, 원 과장은 “저도 공채로 들어왔어요.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비전을 이루고자 ‘원익인’이 되었죠. 영업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입을 뗐다. 원 과장의 말을 받아 김선우 과장 역시 “저도 공채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머트리얼즈에 입사하게 됐죠. (화학공학과) 졸업 후에 가스 관련 업무를 해보고 싶은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원익을 알게 됐고, 1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원익인이 되었습니다”라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줄

업 후 2년간 취업준비만 했다는 류찬하 사원은 “처음 듣는 회사였지만, 해외기업인 구글을 모티브로 자유와 소통, 행복에 대한 비전 설명을 듣고 ‘이곳이면 나의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덧붙여 “언젠가 해외영업을 통해 중국진출의 꿈을 이뤄보고 싶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밥 한 술에 오갈 수 있는 대화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그 주제들을 반찬으로 비유한다면, 이날의 밥상은 구첩반상, 아니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맥주잔에
담아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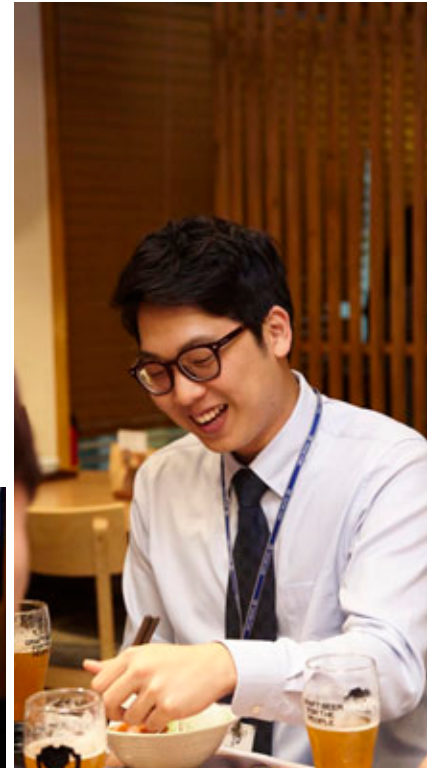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생각에서 오랜 시간 영업에 몸담으며 공부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역량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죠. 다들 힘든 건 없으세요?” 식사를 마치고 맥주잔을 기울이며 박 전무가 질문을 건넸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류찬하 사원은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좌절했었죠”라며 영업의 고충을 들려줬다. 이에 박 전무는 “영업은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심이 통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회사 대 회사’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가 포인트입니다”라며 자신의 영업 철학을 들려줬다. 맥주로 목을 축이던 류현희 과장은 “영업이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단시간이 아닌 꾸준히,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고, 실적도 올라가게 되죠”라고 말했다. 류 과장의 말을 받아 원장호 과장은 “신입부터 계속 영업만을 해오며, 진심이 없으면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 직장의 회장이 ‘박사나 유능한 사람은 연봉을 많이 주면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열심히 내 회사처럼 일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바로 ‘원익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보여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선우 과장은 “고객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수록 가까워지고 신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부딪치고 함께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라는 말로 자신의 7년 영업 노하우를 들려줬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이어가는 이들, 특히 ‘영업’이라는 공통어에 진중하게 고충을 들어주고 노하우를 나누는 이들은, 직급도 사명도 다르지만 ‘원익’이라는 품 안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이어갔다.



원익머트리얼즈
영업마케팅
박창열 전무

원익큐브
수지영업2팀
류찬하 사원



원익머트리얼즈
국내영업팀
김선우 과장



씨엠에스랩
메디컬영업팀
류현희 과장



원익머트리얼즈
해외영업팀
박소명 사원



원익
Lighting팀
원장호 과장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원익인

반 한 끼와 맥주 한 잔은 부족했다. 더욱
향기 짙은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었던 원
익인들은, 조용하고 대화하기 좋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카페에서의 주제는 오늘의 분위기가 그러했듯 자연스럽게 ‘행복’으로
좁혀졌다. “행복이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돈도, 행복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갈구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더
큰 행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원장호 과장
의 목소리로 시작됐다. 이어 류현희 과장은 “행복은 자기만족인 듯합니
다. 현재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나눈다고
생각해요” 또, 류찬하 사원은 “행복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실이라고 생각합니
다”고 말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박창열 전무는 “개인의 목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로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
을 펼칠 수 있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
서 오늘 아주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흐뭇해하였다.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들은, 박 전무가 그러했듯
마지막 차 한 모금을 들이키며 함께한 밥상에 대해 소감을 들려줬다.
류 사원은 “다른 분야의 분들을 만나서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고, 류 과장
은 “의외로 같은 고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듯하고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깨닫고 다짐하게
됐습니다”고 말했다. 박소명 사원은 “오늘을 계기로 판교 사옥에서 인
사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분들과 의미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선우 과장은 “영업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계열사의 다양한 부서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며 밥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원 과장 역시
“얼굴만 보다가 식사를 하게 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서와 계열사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
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행복’한
원익 가족들의 첫 만남, 첫 식사는 이렇게 끝이 났다. **W**



“오늘을 계기로 판교 사옥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분들과 의미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원익 인물 사전

옆에 있어도 1도
알지 못했던
원익인들의 숨겨진
취향저격~

#01

김수연 대리
원익큐엔씨 품질경영본부 품질기획팀



마이 프로필

생년월일 물고기자리
850129

최근 읽고 행복했던 책

장연정[소울트립]
감성적이고
따스한 여행 스케치



요즘 자주 떠오르는 맛집

구미 형곡동 가정식 백반 [홈식]
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대비
훌륭한 퓨전식 한상 차림(불고기/돈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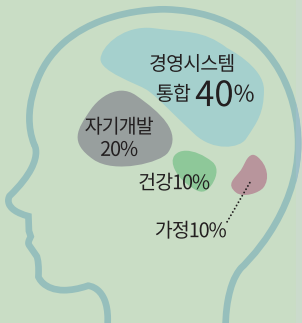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골프, 플라워 가드닝,
잉여짓(먹고, 보고, 잔다의 무한재생)

최근 좋았던 여행지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
관광객이 많아 예전같은 평온함은
사라졌지만, 코앞에 있는 바다와
시름떨떠름한 커피는 여전히 진리

요즘 나의 뇌구조



시간이 지나도 생각날 추억

지금의 본부장님께서 면접관으로 오셨고
시작 직전에 한마디 하신것이 바로
“차 한 잔하실래요?”였는데
평소 같으면 졸보(?)인 저는 사양을 해야했
는데 그날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I say!!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면접 보러와서 탕
비실을 찾아 떠나는 저의 패기와 멋짐폭발
에 속은 저희 본부장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8년째
저에게 속아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 한마디 없었더라면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내인생의 버킷리스트

1. 야생동물들의 친구가 되기 _
아프리카 대륙 6개국 종단
2. 통합시스템 인증받고 쿨함이 사방에
진동하는 3일짜리 연차 투척
3.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go !



#02

전형우 상무
원익큐엔씨 세라믹사업본부 개발/생산총괄

마이 프로필

생년월일 사자자리
60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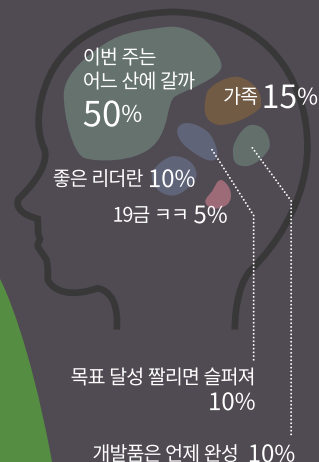
시간이 지나도 생각날 추억

큰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
& 제대하던 날
아! 이제 뭐든 편히 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요즘 자꾸 떠오르는 맛집

고양시 일산서구 **평양출만두**
개운한 국물과 화끈한 고명, 그리고 맛의 절정 만두까지
생각하니 침고이네~

요즘 나의 뇌구조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열심히 걷는다. 그리고 먹는다.
다 이런거 아니겠어

최근에 심각하게 우울감을 느꼈던 때

하나밖에 없는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잔소리가 엄청 늘었다.
ㅠㅠ

최근 '이게 행복이네' 느낀 적은

지난 여름, 설악산 대승
폭포 구경. 쏟아지는 폭
포수를 하염없이 바라
보았던 그 순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1. 파미르고원 탐방
2. 유라시아 대륙 횡단
3. 하프 돔 등반

즐길 준비 됐나요? 파티투나일!



씨엠에스랩
메디컬 영업팀
정국회 대리

레이저 쇼를 보듯 화려한 빛줄기가
사람들 사이를 통과하고 귀를 찌르는 빠른 비트.
이미 심장은 두근두근, 복잡한 스트레스가 확-
사라질 것 같은 이 공기.
여긴 정국회 대리가 근무 중인 씨엠에스랩 쇼룸이다.
신나는 삶을 ‘디제잉’하는 원익덕후,
강남 씨엠에스랩의 ‘정DJ’를 따라가보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취미를 즐긴다고 들었습니다.
정국회 대리님이 즐기는 ‘디제잉’이란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음악은 장르가 아주 다양합니다. 종류
를 간략히 설명하면 일렉트로닉, 덤스텝, 싸이트렌스, 하우스,
프로그레시브, 테크노, EDM 등 아주 많은 장르가 있
어요. 그중에 저는 일렉트로닉 음악을 플레이하는 것을 즐깁니
다. 또한 콜라보 음악이 있는데, 테크노와 하우스를 합친 테
크하우스, 프로그래시브하우스와 같은 음악이 다양하게 존
재합니다. ‘디제잉’이란 두 개 이상의 음악을 믹스(재조합)해
서 플레이하는 일종의 연주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전문성이 필요하죠.

최근 DJ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정
대리님이 가장 좋아하는, 혹은 존경하는 DJ는 누구인
가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디제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5시
간 정도 공연하는데, 베스트 디제이들은 공연 한 번에 적게
는 수천, 많게는 몇 억씩을 받습니다. DJ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이와 함께 직업인으로써 DJ를 꿈꾸는
사람도 많아졌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가장 대중적인 DJ
는 아비치, 마틴게릭, 드미트리, 칼콕스, 스컬렉스 등입니다.
한국에는 구준엽과 박명수가 있겠네요^^.

음악을 접할 수는 있어도, 직접 배우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 ‘디제잉’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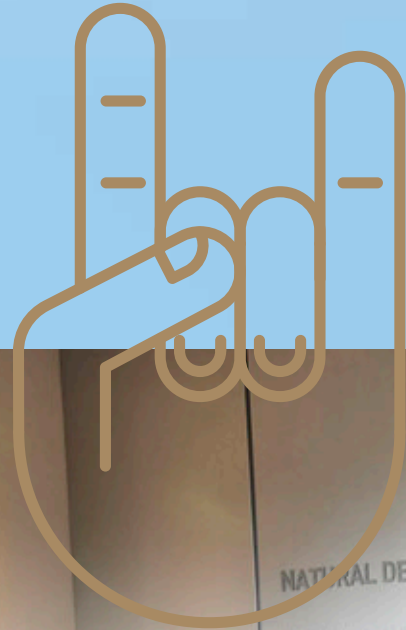
어학연수 시절에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클럽을 자주 갔었
습니다. 이후 한국에 와서도 클럽을 종종 가곤 했습니다. 그
때가 30대 초반이었죠(웃음). 당시부터 일렉트로닉 음악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와 같이 디제잉을
배워보자며 압구정에 있는 디제잉 스튜디오를 찾아가 등록
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디제잉’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플레이하는 동안은 현재 내가 컨트롤 하고 있는 음악에만 집중하게 돼서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특히 일렉트로닉이라는 음악은 박자 마디가 끝나고 음이 크게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느껴지는 전율은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이죠(웃음). 솔직히 현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만큼 자주 즐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학교 축제나 회사 야유회 등에서 저의 음악을 들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더욱이 지나가는 말이라도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때면 아마추어 DJ로서 뿌듯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발전이나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취미를 가짐으로써 우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시선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컨대 ‘디제잉’을 모르는 사람은 “취미가 디제잉입니다”라고 하면 “오~ 신기하다”라며 부러워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 뿌듯해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되죠(웃음).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도움이라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마냥 무료하게만 느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익그룹에서 근무할 당시, 워크숍에서 재능기부를 해줬다며 상품권 1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였죠(웃음).

저에겐 디제잉은
마냥 무료하게만 느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죠



취미 생활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취미라는 것이 매일 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지치고 삶에 의미를 잃어버릴 때, 나를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대기업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자살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감히 생각건대 이유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취미 생활을 했더라면 쉽게 삶을 포기하진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서 ‘별걸 다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 달라’ 혹은 ‘나도 배우고 싶다’ ‘그렇게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부럽다’ 등의 반응입니다. 사실 주변 동료들 모두, 씨엠에스랩 전 직원 모두와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이유는 가볍게 마시는 술 한 잔과 신나는 음악을 함께하며, 그 시간이나마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함께 춤추며 미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웃음).

디제잉을 통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디제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리님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사실 제가 하는 디제잉은 2개의 음악을 컨트롤해서 믹싱하는 수준입니다. 5개 이상의 음악을 컨트롤하는 프로와는 비교가 안 되죠. 고도의 기술을 갖고 댄스다거나, 프로 DJ가 되겠다거나 하는 꿈은 없습니다. 다만, 아마추어로서 제가 생각하는 디제잉은 서로 다른 음악을 마치 한 음악처럼 연결해 주고 그 사이에 임팩트를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을 제 앞에서 춤추게 만드는 것이죠(웃음). 즉, 디제잉은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하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주변 상황 등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스스로 모든 걸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나도 그리고 주변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 역시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W**



‘뭔가 다르다’ 원익머트리얼즈 양청사업장에서 만난
한우성 사장의 첫인상이 딱 그랬다.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성공한다”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고 실행에 옮겨야 행복하다”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드는,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치는 일침.
더욱이 남다른 관계 관리와 소통으로 ‘리더’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우성 사장.
그가 들려주는 경영과 행복을 함께 해보자.

생각부터 행동까지 ‘유니크’한 사람이 성공한다!

원익머트리얼즈 한우성 사장

남만큼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원익머트리얼즈 한우성 사장은 1983년 삼성반도체통신 입사 후 Photo 공정엔지니어이자 연구원, Photomask팀 상무, SAS 법인장, 삼성전기 기판사업부장, 삼성전자 LED사업부장을 거쳐 삼성전자를 퇴사할 때까지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현재 원익머트리얼즈의 새로운 수장이 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끌어가고 있다.

“가난했던 시절을 보내며, 없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남들만큼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나보다 머리가 더 좋고, 공부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준다.”

지금도 한우성 사장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된다. 그에게 숙면이란 4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른 아침, 아니 새벽에 하는 일이란 스트레칭과 독서, 그리고 산행이다. 특히 독서는 사무실을 가득 메운 책들을, 하나하나 감상에 따라 구분해서 진열해둘 만큼 남다른 독서량을 보여준다.

“성공하기 위해선 남들과는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 뒤집어서, 거꾸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추석을 예로 들면, 가족들이 모이면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명절이면 사소한 것으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거창한 허례허식을 던져버렸다. 가족들 모두가 부모님 산소에 모여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고하는 식으로 전해드린다. 그러곤 인근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헤어진다. 얼마나 행복한가?”

성실과 열정만이 아니다. 한우성 사장은 남들과는 다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배짱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이로 인해 ‘특이한 사람’이란 말을 자주 듣지만, 그것이 또한 성공한 리더의 자질임에는 분명하다.

학교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직장동료

“주인의식을 늘 강조한다.
자신만의 사업체를 경영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또는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으로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이다.”

회식이나 회의를 통해 한우성 사장이 늘 강조하는 단어는 ‘주인의식’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마인드가 없이는 일에 대한 열정도, 성공에 대한 도전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친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며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참 논리적이지 않다. 학교 때 친구는 같은 반이었던 1년, 혹은 대학 시절 4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직장동료는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며, 평생을 함께 구슬땀을 흘려가며 희로애락을 함께한다. 그럼에도 ‘학교친구’는 친구라 말하고 ‘직

장동료’는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 학교친구는 성적과 등수를 향해 경쟁한다. 하지만 직장동료는 함께 성장하며 선의의 경쟁을 한다. 결국 진정한 친구 ‘직장동료’다.”

실제 한우성 사장의 모바일에는 그동안 함께한 동료의 연락처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 특히 모든 이들의 생일에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매일 1건 이상의 생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셈”이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원익머트리얼즈는 CEO인품에 걸맞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회사를 지향한다. 나아가, 자유와 소통, 행복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행복이란 비움이자 배려이다. 고민, 걱정거리, 욕심을 비우면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또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가?”라는 말로 향후 기업문화의 중심이 ‘소통’이며 ‘자유’ ‘행복’이 될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

글로벌 리더를 향한 활기찬 도약

원익머트리얼즈는 2002
년 설립 이후 반도체 제조,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특수가스를 생산 및 조달하는 전문 기업으로 지속 성장을 이어왔다. 그리고 2017년 한우성 사장의 취임과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앞으로 환경 안전과 품질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물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있다. 외형은 성장하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 pool이 취약하고 회사 브랜드와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브랜드 네임을 키우는 한편, 성장이 멈추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적인 먹거리 창출에도 힘을 계획이다.”

훌륭한 리더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해결을 위한 방안에 심혈

을 기울인다. 한우성 사장이 훌륭한 리더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다. 특히 현재가 아닌 미래의 위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시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선진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과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후배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들려준 한우성 사장은, 인터뷰의 끝으로 “원익인이 된 지는 불과 몇 개월이지만, 예전에 듣던 작은 원익이 아닌 성장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회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현재의 위치가 아닌 미래의 글로벌 기업을 향해 임직원 모두 함께 정진해 나가겠다”며 원익인으로서의 남다른 각오도 잊지 않았다.

W

“행복이란 비움이자 배려이다. 고민, 걱정거리, 욕심을 비우면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또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가?”





박현우 부장
&
김창순 사원
원익로보틱스
연구개발팀

자석의 양극처럼
다름으로
함께를 이루다



판교사옥에서 원익로보틱스 연구개발팀의

박현우 부장과 김창순 사원을 만났다.

이들은 ‘사수와 부사수’ ‘멘토와 멘티’ 같은 일반적인 단어로는 부족하다.

큰형과 막내 같은 느낌이랄까? 가족처럼 닮은꼴이지만, 또 전혀 다른 두 사람.

허물없이 유쾌한 대화가 펼쳐진 인터뷰 현장을 공개한다.

#1. 인생의 좌우명을 논하다



매일 보면서도, 이런 자리에서 마주 보고 있으니 어색하네요(웃음). 먼저, 제 좌우명은 ‘부딪치고 깨져보자!’입니다. 무슨 일이든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 저 질러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부장은 좌우명이 뭐예요?



약간 수정해야 할 것 같아. 창순 씨의 도전 정신과 당당한 행동은 정말 보기 좋아. 그런데 계획을 잘 세운 뒤에 부딪히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웃음).



그럼 오늘부터 제 좌우명은 ‘계획을 잘 세운 뒤에 부딪치고 깨져보자!’로 하겠습니까(웃음).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도 부장님의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 좌우명은 ‘행복하게 살자’야. 일뿐만 아니라, 가정도 중요하고, 건강도 마찬가지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주변과의 관계가 잘 돼야 해. 우선순위라는 건 없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관리될 때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2. 엔지니어의 자세&첫인상



어떤 일이든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본질을 파악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것부터 해결하려 했거든요. 또 스스로 깊이 문제를 파고들기보다 남의 도움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어요.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했죠.



맞아. 그게 중요해. 어떤 문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린 엔지니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활용하는 것이 우리 엔지니어가 갖춰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논리적인 자세를 이야기하시니까 처음 부장님을 뵈었던 때가 생각나네요.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유독 부장님은 아무런 질문도 안 하셨어요. 면접이 끝난 후에 아내(당시 여자친구)에게 한 분이 아무런 말이 없더라. 그분이 제일 무섭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굉장히 꼼꼼하고 정말 논리적인 분일 것 같은 인상이었죠.



창순 씨는 면접을 볼 때나 처음 출근할 때나 젊은이의 패기가 느껴져서 참 좋았어. 도전정신과 일에 대한 흥미도 남달라 보였어. 일에 대한 관심과 포커싱을 잘 맞추면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지. 다만, 깊이가 얇은 것이 좀 흠이랄까, 그래도 쾌활하고 밝은 성격은 참 부러워.

#3. 아낌없이 건네는 조언



부장님은 사내에서 ‘촌철살인’이라 불릴 만큼 날카롭고 적극적인 의견을 어필하시기로 유명하시죠. 일을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실 때면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곤 합니다. 부장님의 신입 시절은 어떤지 궁금해요.



첫 직장이 하드웨어 전문 기업이었어. 그곳에서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실무를 많이 쌓을 수 있었지. 난 그런 과정을 쌓을 기회가 있었지만, 창순 씨는 우리 부서의 특성상 실무적인 부분, 그런 과정을 겪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업무 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키워야 해. 처음엔 나도 선배에게 물어가면서 많이 배웠거든.



스스로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부족함은 느끼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술 함양이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미생에서 보면 직장생활에서 ‘일은 안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네!’는 말이 나와. 우리에게 이 말은 반만 맞는다고 생각해. 반복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맞는 말일 테지만, 우리는 해결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직업이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끊임 없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

#4. 업무적인 비전을 공유하다



원래 농담이나 칭찬에 인색한 분이셔서, 가끔 사소한 일로 “잘 했다”고 하실 때마다 감동하곤 해요(웃음). 그래도 요즘엔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을 안 하는 성격이거나, 요즘 많이 해주는 게 아니야. 실제로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하는 거지. 요즘 많아진 건 그만큼 창순 씨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웃음).



따로 또 같이 같은 듯 다르지만 둥글게 새기는 나이테로 같은 비전을 그린다



감사합니다(웃음). 마지막으로 제 비전을 말씀드리면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론테면 가사도우미 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것이 저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부장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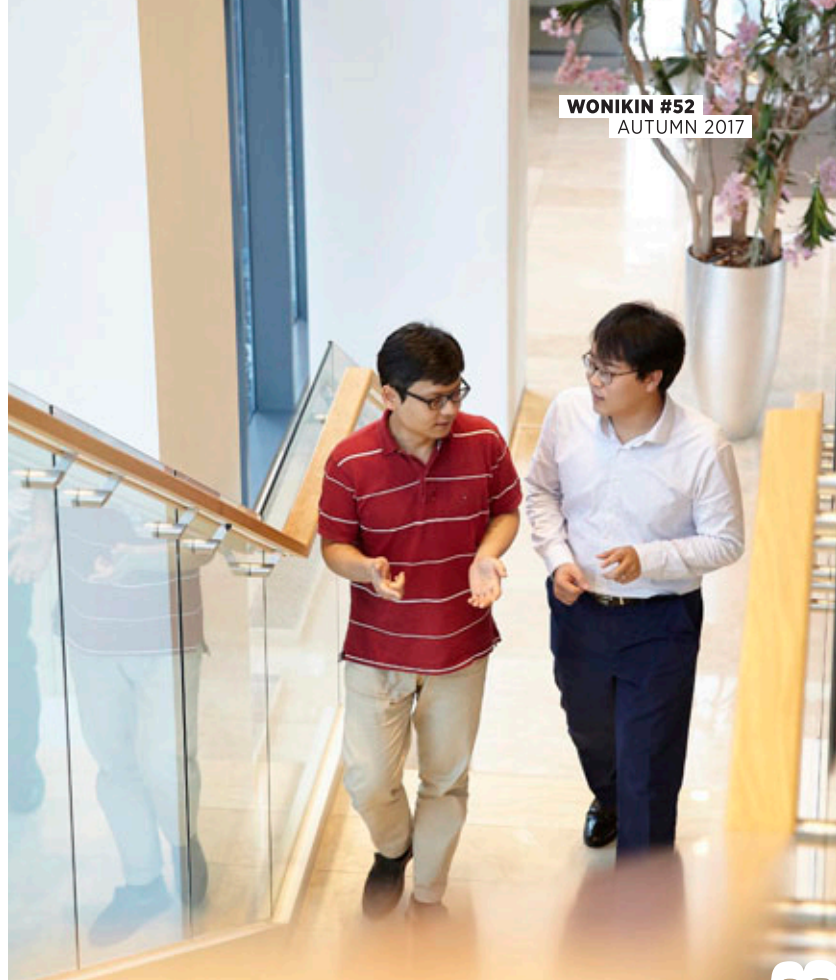
로봇회사다 보니 나의 비전 역시 창순 씨와 같아.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산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꿈이지. 현재 로봇은 '제품'이 아닌 '연구개발' 분야에 속하잖아. 하지만 양산을 하게 되면 가격도 그만큼 저렴해지고, 그곳이 곧 대중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업무적으로도, 부장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도 뜻 깊은 시간이었어.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질문하도록 해. 따끔하게(?) 알려줄테니까(웃음). **W**



“행복이란 순간에 충실한 느낌이다.

미래,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실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원익로보틱스 김창순 사원(한낮의 인터뷰)

Great

“행복은 컨트롤이다.

내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컨트롤 할 수 없다면
행복할 수 없다.”

씨엠에스랩 정국희 대리(원익덕후)

“행복은 건강과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우선 순위는 없다. 둘 모두 조화롭게 관리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원익로보틱스 박현우 부장(한 낮의 인터뷰)

“힘들게 준비한 작은 이벤트,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는
동료들을 볼 때 보람을 넘어 행복을 느낀다.”

원익아이피에스 김수빈 대리(출근길 이벤트)

우리들의
이순간이
행복이다

WONIK GROUP

개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일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원익머트리얼즈 박창열 전무(밥 한번 먹어요)

“행복은 같이 나누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나누면 더 행복해진다.”

원익큐엔씨 이종수 부장(구미봉사활동)

“행복은 비움/배려다.

고민과 걱정거리를 비우면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남을 위해 배려하고 도와주면 또한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가?”

원익머트리얼즈 한우성 사장(THE WAY)



“직장생활에서의 행복은

업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될 때 얻을 수 있다.”

원익아이피에스 이병용 과장(원익히어로)

“행복이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돈도 행복도 자연스레
다가오지 않는다. 열심히 갈구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더 큰 행복도 올 수 있다.”

원익 원장호 과장(밥 한번 먹어요)



“행복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원익큐브 류찬하 사원(밥 한번 먹어요)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한 자리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지금 행복하다.”

원익머트리얼즈 김민수 사원(가든파티)



“행복은 자기만족이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

씨엠에스랩 류현진 과장(밥 한번 먹어요)





58

원익은 지금 ❶ 씨엠에스랩
도약의 발판, 비상 날개
강남 사옥 이전

66

원익은 지금 ❷ 원익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하급수 기업의 업무 혁신

70

원익은 지금 ❸ 원익머트리얼즈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을 즐겨라!
원익머트리얼즈 가든파티

74

원익은 지금 ❹ 원익아이피에스
It's 행복한 출근길
The 행복한 순간

78

원익은 지금 ❺ 원익큐엔씨
나눔에서 배우는 소중한 가치
구미적십자나눔터 봉사활동

82

명작예찬
삶의 기쁨과 환희의 발산

9월 23일 원익 씨엠에스랩이 판교 사옥에서 강남대로에 위치한 브랜드칸 타워로 이전했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씨엠에스랩은, 국내 코스메틱 시장의 메카인 강남 진출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비상
의 날개를 달고 국내를 넘어 세계
를 향한 비전을 이뤄가고 있다.

원익
씨엠에스랩
강남 사옥 이전

도약의 발판, 비상의 날개로
날아오르다



깔끔하고 쾌적한 씨엠에스랩의 스낵바 '사랑방'



직원들 출출함을 췌겨줄 다채로운 간식들

01

편의 공간

오직 직원만을 위해 준비하다 원익인만의 사랑방

브랜즈칸 타워 7~9층에 자리 잡은 씨엠에스랩은, 7층의 스낵바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느 카페가 부럽지 않은 인테리어에 커피부터 우유, 각종 음료는 물론이며 옥수수, 바나나, 김밥, 샌드위치, 빵, 시리얼 등 임직원의 편의를 위한 먹거리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다. 신사옥을 안내하던 박지현 사원은 “판교 사옥에 있을 당시 스낵바를 좋아 하던 임직원의 취향에 맞춰, 강남 사옥에도 스낵바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인근에 시장이 있어서 신선한 먹거리를 바로 사서 구비할 수 있다”고 귀띔한다. 스낵바만이 아니다.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옥상휴게공간은 업무에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강남 사옥은 휴게공간부터 사무실 등 모든 공간의 외벽을 통유리로 제작해 쾌적한 업무를 보장하고 있다.

HAPPINESS

02

연구센터

명가의 자존심을 걸다. R&D Center의 확장

씨엠에스랩은 지난 16년간 병·의원 채널 기반의 메디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와 혁신, 기술력 기반의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국내외 메디컬 뷰티 시장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메디컬 코스메틱 전문 기업으로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다. 명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씨엠에스랩, 그 중심에는 설립이후 꾸준히 기술개발에 앞장서온 Innovation R&D Center가 자리한다. 특히 씨엠에스랩은 2017년 사옥 이전과 함께 R&D센터를 1.5~2배 규모로 확장하며 기술개발의 선두기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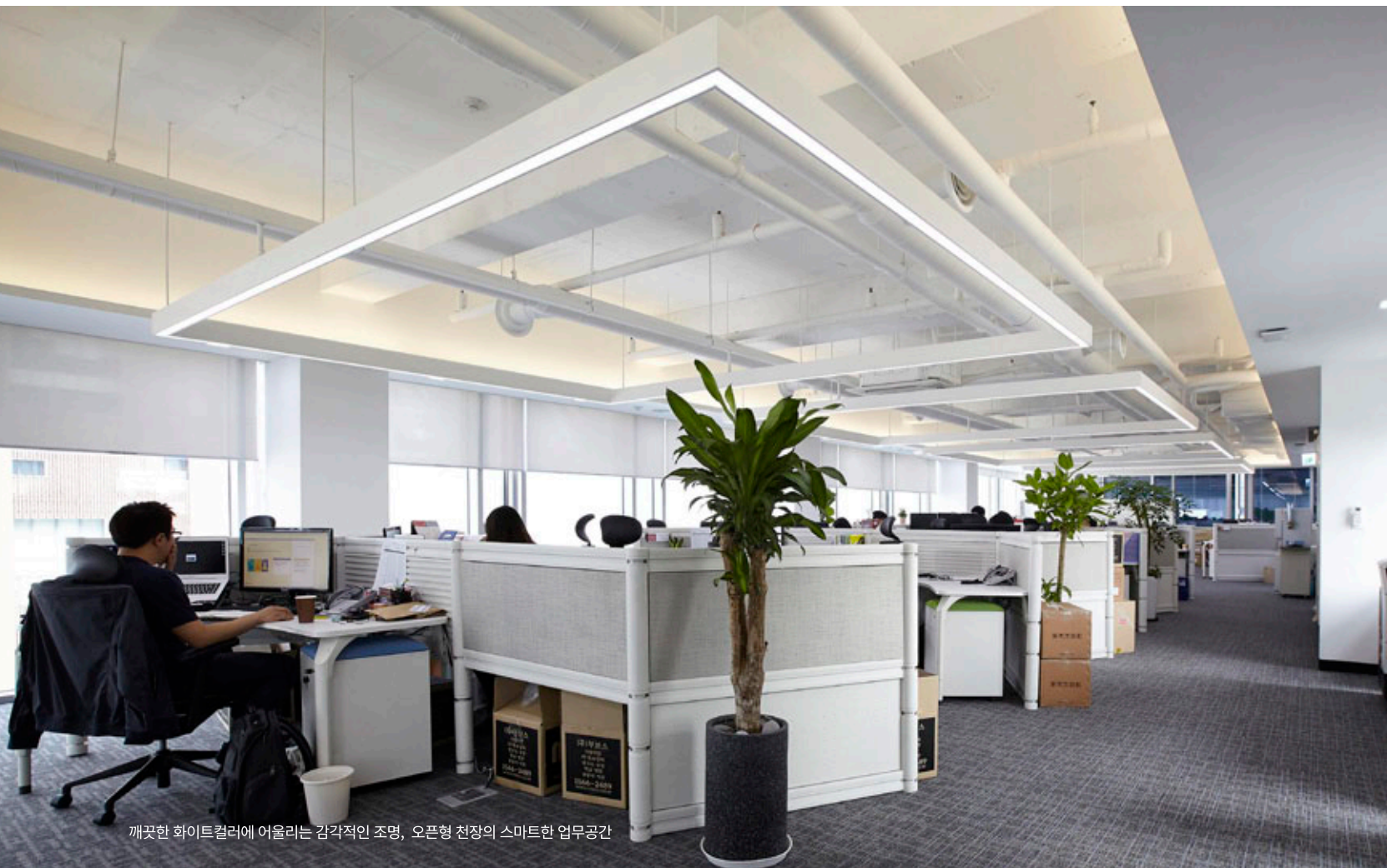


명칭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비전을 보여주다

스낵바를 나오면 왼쪽으로 보이는 공간에 시선이 머문다. 굳게 닫힌 문 위로 ‘C: Drive’라는 문패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곳의 용도는 창고다. 이렇듯 신사옥은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에 독창성을 보여준다. 특히 회의실의 경우, 원익의 핵심가치를 그대로 담아내며 3개의 회의실에 각각 ‘자유’ ‘소통’ ‘행복’이란 명패를 달아주었다. 물론 층마다 들어서는 입구의 벽을 활용해서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끊임 없이 되새기고 있다. 신사옥의 인테리어를 처음부터 함께 해온 권혁화 과장(인사파트)은 “화장품 회사답게 모든 공간은 최대한 여유 있게, 오픈 천장을 활용하고, 디자인은 젊은 감각으로 구성했다”라며 “정형화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업이미지를 담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03

업무 공간



깨끗한 화이트컬러에 어울리는 감각적인 조명, 오픈형 천장의 스마트한 업무공간



“ 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

씨엠에스랩 이진수 대표이사

요즘은 기업의 방향을 고객이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고객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찾아가자’고 강조합니다. 강남은 가장 많은 고객이 있는 곳이며,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남 사옥 이전은 고객에게 조금 더 다가가겠다는 씨엠에스랩의 다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줄리면 나가서 거리를 걸거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길거리를 걷고 쇼핑을 하면서 직원들이 트렌드를 알 수 있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제품이 탄생하는 거죠.

강남으로 사옥을 이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하며 임직원들 간에 끈끈한 단합력이 생겼습니다. 임직원들과 함께 활기찬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

쇼룸



한눈에 담아보다. Show Room

씨엠에스랩은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셀퓨전씨’와 트렌디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스위스킨’ 배우 이일화 씨를 모델로 한 홈쇼핑 브랜드 ‘리페라’를 운영하는 코스메틱 기업이다. 특히 ‘레이저 썬스크린’ 등 유명 여배우의 썬크림, 비비크림으로 화제를 모은 브랜드 ‘셀퓨전씨’는 꾸준한 성장세에 이어, 최근 국내 최대 H&B 스토어 올리브영에 입점하며 본격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씨엠에스랩의 인기는 스위스킨, 미국 얼타, 일본 니코앤드 등 해외 유명 화장품 편집숍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그리고 모든 제품을 8층 쇼룸에 가면 한눈에 담아볼 수 있다. 세련되고 심플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쇼룸에는 제품 외에도 대형 스크린(모니터)과 널찍한 테이블 등이 마련되어 있다. **W**





스위스 청정 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브랜드, 스위스킨



고객들의 꾸준한 애정 아이템, 셀퓨전씨 레이저 썬스크린



연어추출물과 효과적인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아이세럼



Innovation

“혁신하라!” 원익인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기업의 혁신과 더불어, 임직원 개개인의 혁신이 자연스러운 기업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9월 15일 오전 10시, 판교 본사에서 IGM(세계경영연구원) 김성훈 교수의 강의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하급수 기업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많은 호응과 집중으로 이어진 특강, 그 핵심을 정리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라!

존 챔버스 시스코 회장은 “포춘 500대 기업 40%가 10년 내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벡 워드와 전 싱글래티티대학 부총장은 “포춘 500대 기업 70%가 10년 내 사라질 것이다”고 확신했다.

이들의 말처럼 다가오는 미래는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가 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기하급수 기업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기하급수적 기업’이란 열정을 가진 구성원들이 한계비용 제로 수준에 있는 수많은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 조직운영에 활용해 동종업계보다 실적이나 영향력이 5배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하급수 기업의 일하는 방식 혁신

강사 IGM 김성훈 교수 | 4차 산업혁명 Application 센터장





소셜 테크놀로지란?
(Social Technology)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효율적 업무를 위해
교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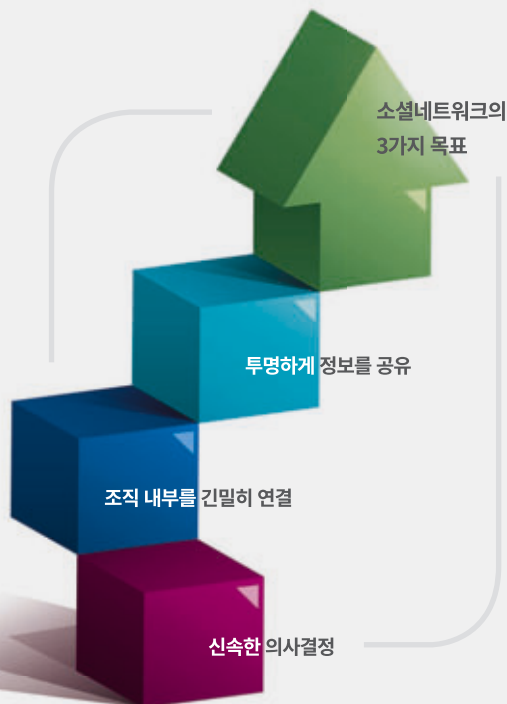
디지털 혁신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하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디지털 혁신 트랜스포메이션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경영혁신 프로세스는 전략 방향에 이어, 비즈니스 모델 정의 단계를 지나, 운영 혁신으로 이어진다. 특히 운영 혁신은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된 ‘조직구조’와 ‘조직문화’가 구성되었을 때 완성된다.

왜 디지털 혁신 TF가 필요한가?

과거에는 신제품 개발 등의 고객가치 혁신과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의 프로세스혁신, 그리고 인프라 혁신 등이 제각각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융·복합적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디지털 혁신 TF의 핵심 역할은 비전구축과 중장기 Biz 모델링,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이뤄진다. 이중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컨버전스 리더십(문화적 측면)과 디지털 역량(기술적 측면)을 의미한다.





자율, 실험, 참여로 기업의 기민성을 높여라!

문화적 측면에서의 혁신은 자율과 실험, 참여로 완성된다. ‘자율’이란 다기능 팀이 중앙조직으로부터 권한을 나눠 받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는 것, 허락 없는 혁신의 전제 조건이 된다. ‘실험’이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설을 검증하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다. ‘참여’란 외부인을 의사결정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것으로, 권력의 이동과 고객 변화 그리고 혁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하급수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법

기술적 측면에서의 혁신은 기하급수 기업이 활용하는 기술 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사 결정을 자동화하는 ‘알고리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접점인 ‘인터페이스’ 조직을 효과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대시보드’ 조직의 협업을 극대화하는 ‘소셜 테크놀로지’가 그것이다.



김성철 교수는 현재 KAIST 녹색성장대학원 교수(그린 IT 및 전기자동차 강의 및 연구)로 재직 중이며, KT 미래융합전략실 스마트에너지 사업단장 (국가 에너지신사업 리딩) 전략기획실 미래융합 사업단장 (융합 신성장동력 발굴), 일진홀딩스 CTO, 일진전기 차세대기술원 원장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삼성전자 CTO 전략실 수석, 반도체/LCD(사) 수석, 삼성벤처 사업팀 부장, 삼성중합기술연구원 MEMS Lab. 수석 (ICT기반 미래 유망사업 발굴), KAIST 공조 환경제어 연구실 위촉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을 전문 분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리는
우리는 지금 파티예요



‘번쩍번쩍’ 하루가 끝나갈 즈음의 별은 마지막 빛을 짜내듯 무엇보다 환하게 반짝인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눈부신 햇살보다 더욱 반짝이는 눈빛들, 노을빛을 옮겨놓은 듯 홍조 띤 미소들, 그리고 별이 사라진 뒤에도 끝나지 않는 웃음과 수다까지. 햇살보다 더욱 반짝였던 원익머트리얼즈 가든파티를 담아보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을 즐겨라! 원익머트리얼즈 가든파티

파티장을 가득 메운 삼겹살내음, 그리고 행복

9월 21일, 시계바늘이 오후 4시를 가리키자 넓은 주차장은 파티장으로 변신했다. 중앙에 삼겹살과 짬뽕, 각종 장류와 어묵국, 생맥주와 소주, 음료 등의 먹거리가 차려지고 빙 둘러서 천막과 테이블이 펼쳐졌다. 5시가 다가오자 하나 둘씩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기 시작했고, 5시가 넘어서자 고기 굽는 소리와 이야기소리로 산업단지가 떠들썩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원익머트리얼즈의 가든파티가 이날, 오창 1공장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가든파티는 어느새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전체회식인 셈이죠. 자율참석이 원칙이지만, 평소 업무적으로만 마주치던 부서 간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어 대부분의 임직원이 스스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진행 및 사회를 맡은 이병섭 과장의 말이다. 실제 행사에는 200여명의 임직원이 함께하며 남다른 스케일의 회식문화를 선보였다. 참고로, 오창 2공장은 지난 19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가든파티를 마쳤다.

“직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행복합니다. 직장인에게 행복은 ‘출근이 즐겁고 퇴근이 불편’한 거 아닐까요?(웃음) 그런 의미에서 일터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강혁 부장(제조담당)의 말처럼 일터는 ‘행복’한 향기와 소리들로 가득했다. 군침 도는 삼겹살내음이 진동하는 일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일터. 원익머트리얼즈 주차장에서 열린 파티는 구슬땀을 흘리는 일터이자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 있었다.

사장님도, 동기들도, 우리 팀도 짠! 짠! 짠!

“좋은 날씨에 일하는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준 사장님과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파티를 계기로 회사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타 부서 동료들과 삼겹살을 나눠 먹던 인사총무팀 양재철 사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같은 부서가 아니라 밥 한 번 같이 먹기가 힘들었던 동료들은 “위하여!” 힘찬 건배와 들뜬 표정으로 양 사원의 목소리에 호응을 건넸다.

같은 부서라도 교대근무 탓에 함께 할 수 없었다던 이영훈 사원(품질관리팀)은 “오랫만에 팀원들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며 함박미소를 지어보였다. 김준혁 사원(설비팀)은 “형, 동생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라며 팀원 간의 끈끈한 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파티장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과시하고 있었다. 김효숙 선임연구원(개발팀)은 “직원이 모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학교에서만 생활하다가 사회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 첫 회사생활부터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게 되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라며 홍조 띤 얼굴로 미소를 건네 보였다. 동기들과 한 자리에 둘러앉은 이원목 대리는 “바빠서 모이기도 힘든데, 이런 기회를 통해 한 자리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고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라며 남다른 동기애를 보여주기도 했다.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한 자리를 갖게 되어, 행복합니다!” 들뜬 목소리로 고백 아닌 고백을 들려준 김민수 사원(기술팀). 그의 말처럼 파티장은, 원익머트리얼즈는 행복한 분위기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노는 것도 열정적이다!

파티가 끝나갈 즈음인 오후 7시, 강혁 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중앙에 섰다. 그의 앞에는 선물꾸러미가 줄지어 있었다. 다름 아닌 칭찬릴레이가 시작된 것이다. 호명된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을 호명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호명된 직원은 선물꾸러미와 함께 박수와 함성을 온몸에 받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4년 8개월 만에 오늘이 분위기가 최고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만큼 돌아갈 때에는 음주운전을 절대 금지,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회사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머트리얼즈를 위하여!”

뜨겁고 즐거웠던 파티는 김갑주 팀장(SCM팀)의 마무리 인사로 막을 내렸다. 즐거웠던 가든파티는 끝이 났지만, 원익머트리얼즈의 열정과 비전을 향한 날갯짓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노는 것도 열정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가든파티로 신나게 즐긴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하는 원익머트리얼즈의 희망찬 내일과 미래를 기대해본다. **W**

누구보다
세상 행복한 웃음으로



즐기는
지금 이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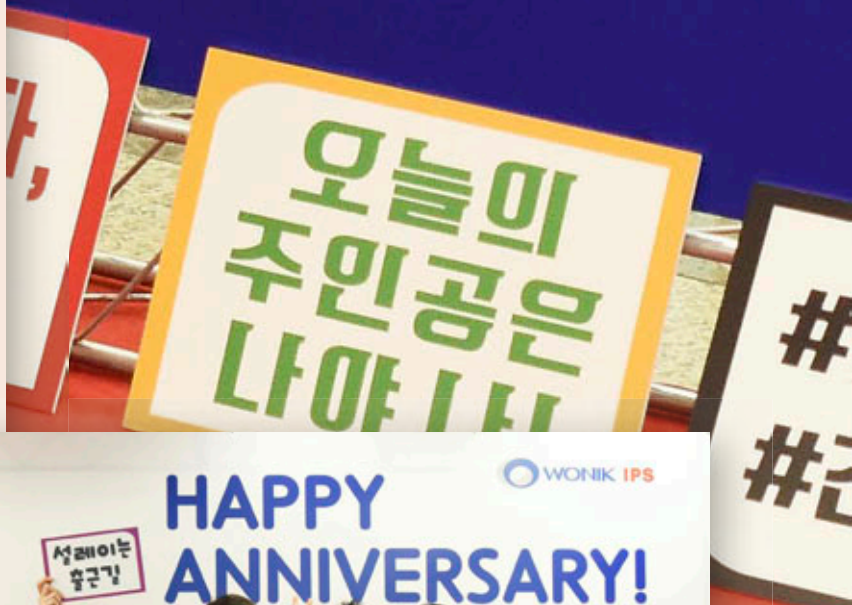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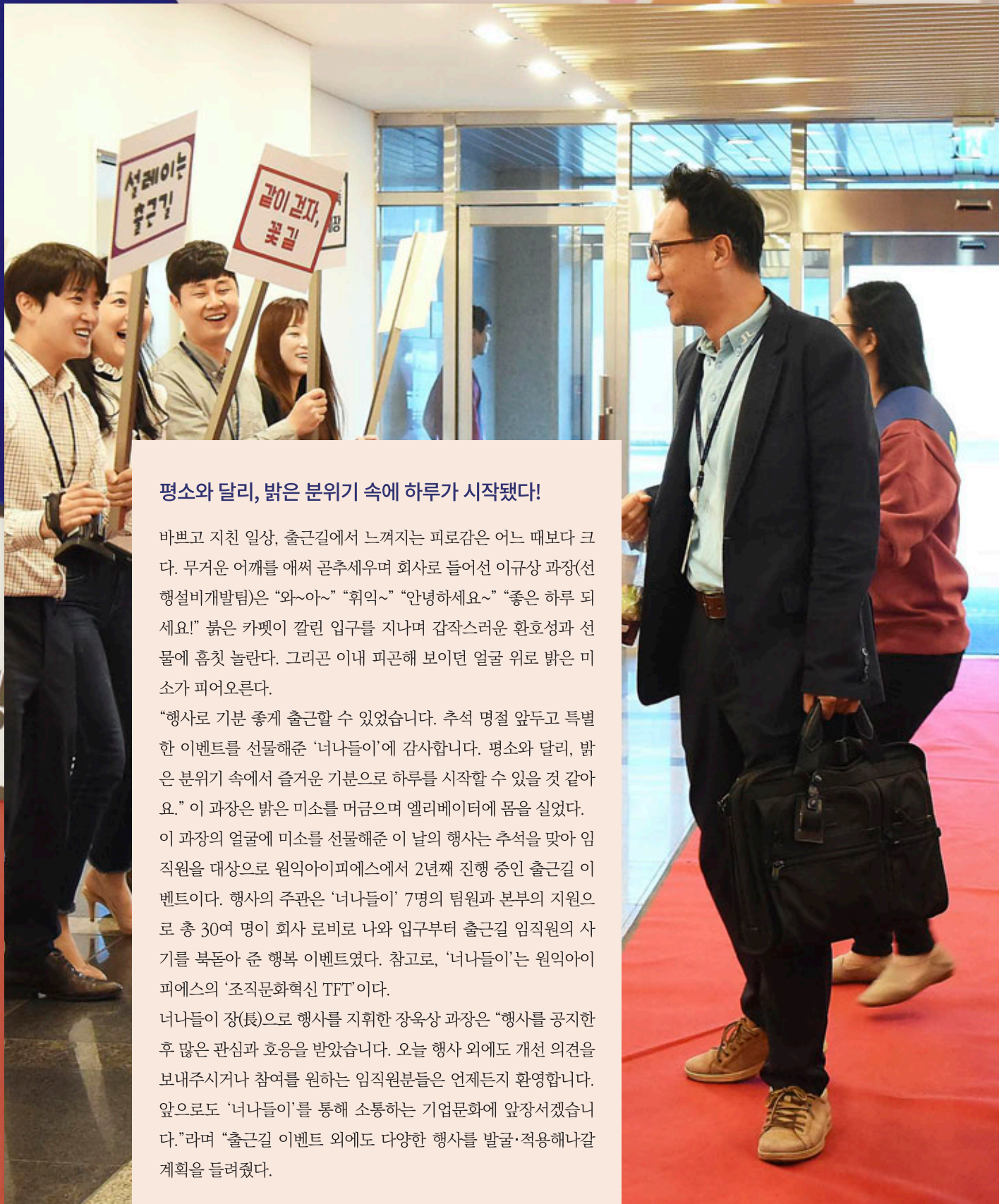
73
HAPPINESS

It's 행복한 출근길 — The 행복한 순간

원익아이피에스
출근길 이벤트

2017년 9월 29일 아침,
그날! 행복한 출근길로 기억한다.
'한가위 연휴'를 앞둔 전날,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목소리로 고스란히 담아보았다.





평소와 달리, 밝은 분위기 속에 하루가 시작됐다!

바쁘고 지친 일상, 출근길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무거운 어깨를 애써 곧추세우며 회사로 들어선 이규상 과장(선행설비개발팀)은 “와~아~” “휘익~”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를 지나며 갑작스러운 환호성과 선물에 흠칫 놀란다. 그리곤 이내 피곤해 보이던 얼굴 위로 밝은 미소가 피어오른다.

“행사로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를 선물해준 ‘너나들이’에 감사합니다. 평소와 달리, 밝은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장은 밝은 미소를 머금으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이 과장의 얼굴에 미소를 선물해준 이 날의 행사는 추석을 맞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원익아이피에스에서 2년째 진행 중인 출근길 이벤트이다. 행사의 주관은 ‘너나들이’ 7명의 팀원과 본부의 지원으로 총 30여 명이 회사 로비로 나와 입구부터 출근길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준 행복 이벤트였다. 참고로, ‘너나들이’는 원익아이피에스의 ‘조직문화혁신 TFT’이다.

너나들이 장(長)으로 행사를 지휘한 장욱상 과장은 “행사를 공정한 후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늘 행사 외에도 개선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참여를 원하는 임직원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너나들이’를 통해 소통하는 기업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라며 “출근길 이벤트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발굴·적용해나갈 계획을 들려줬다.



같이 걷자, 꽃길

안태현 과장(제조기술팀)은 환호성에 한 번, 선물에 두 번 놀라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까지 함께 촬영하였다. 설레이는 마음을 간직한채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내 가벼워졌다. “아침부터 신선하네요. 입구부터 밝고 환한 표정들을 보니 절로 마음이 즐거워져요. 기분 좋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와 길게 펼쳐진 레드카펫이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밝고 경쾌한 환호성과 인사 소리에 고개를 드니, 30여 명의 인원이 재치있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춤을 추듯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다. ‘같이 걷자, 꽃길’ ‘내일부터 추석 연휴’ ‘오늘도 파이팅’ ‘오늘 주인공은 나야 나!’ ‘나 혼자 잘했으면 좋겠다’ 등 시선을 사로잡는 재미난 메시지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행사를 준비한 김수빈 대리(구매본부)는 “업무 후에 너나들이 팀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피켓 문구를 생각하고, 선물도 직접 고르고 포장했어요. 600개를 직접 만들었죠.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지만, 행복해하는 직원들을 보니 보람과 야니, 뿌듯함 그 이상의 행복이 느껴져요”라며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건네 보였다.





어색하지만, 기분은 연예인!

레드카펫을 밟은 강신로 사원(기술개발팀), 김대호 사원(제조기술팀), 박창희 사원(반도체 사업본부) 등 대부분 사람들은 “주인공이 된 기분이다”, “척오!”라며 회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김동철 상무(경영지원본부)는 “평소 출근길, 피곤해하는 모습들이 역력한데 오늘은 모두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니 에너지를 제대로 받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라며 뿌듯해했다. 덧붙여 “이처럼 행복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원익아이피에스는 다양한 행사를 구상 중입니다. 아침 집중근무를 위한 ‘창의시간 20%’와 ‘가족을 일터로 초청하는 행사’ 등 앞으로도 활기찬 원익아이피에스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른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출근길 이벤트는 9시가 다 되어 끝이 났다. 환호에 선물까지 좋은 기운을 받은 임직원들의 표정은 하나 같이 행복했다. 그리고 이날의 이벤트를 준비한 너들이 팀원들과 앞장서서 지원을 나온 본부인원들의 표정 역시 행복함과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원익아이피에스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활기찬 기업문화로 미래를 선도해가는 기업, 원익아이피에스의 당찬 발걸음을 응원하고 기대한다. **W**

포근한 별이 내려앉은 토요일, 구미 적십자나눔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올랐다. 아빠와 엄마, 아이들,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이 빵을 굽고 면을 만들며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활동으로 훈훈함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원익큐엔씨와 대한적십자봉사회가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총 150인분의 빵과 칼국수를 만들며 아이들에게 나눔을 체험하고 원익인에게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었다.

‘원익나눔회’의 아름다운 발걸음

구미적십자나눔터에 13명의 원익인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전 9시 30분부터 <원익큐엔씨와 함께하는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아이들과 함께 온 원익 가족들은 조리용 앞치마와 모자를 쓰며 시작부터 설렌 미소와 웃음으로 나눔터를 가득 메웠다. 행사를 주관한 ‘원익나눔회’는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내 봉사활동 동우회로, 매년 4건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현혈 릴레이, 지역사회 환경개선, 쌀·라면 배달, 농촌 봉사를 진행하고 사랑의 산타와 명절 음식 나눔, 장애우 워터파크 나들이, 플리마켓 등 비정기적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구미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한다. 다만,

피봉사자 선정의 문제와 지속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9월 23일 토요일 구미적십자나눔터와의 첫 인연을 시작으로, 적십자와의 연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이날 행사는 가족 포함 20명의 인원이 참여한 것 외에도, 후원금 200만 원을 기부하는 실질적인 도움과 나눔의 모습을 선보였다.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과 소중한 체험을 선물하기 위해 매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익나눔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성용 기장(취츠제조본부 생산 2팀)은, 덧붙여 “단순한 봉사가 아닌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눔에서 배우는 소중한 가치

원익QnC와 적십자가 함께하는
사랑의 국수나눔

밝은 햇살처럼 환한 미소, 갓 구운 빵처럼 향기로운 추억

“자, 여기로 모여주세요” 안내에 따라 원익 가족들은 긴 테이블로 모여 앉았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피어오르는 듯하다. 니, 빵과 국수 만들기에 이어 포장하고 손수 배달하는 오늘의 일정을 들을 즈음엔 모두의 얼굴에 미소와 설렘이 한가득 피어오르고 있었다.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하며 가족 모두 소녀가 된 듯 ‘하하’ ‘호호’ 활기찬 분위기가 나눔터를 가득 메웠다.

셰프로 변신한 원익 가족들은 반죽을 위해 달걀을 커다란 그릇에 하나씩 깨서 넣는 사람들과 빵틀에 종이를 하나씩 씌우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나뉘었다.

“빵 만드는 게 재밌어요. 달걀을 깨고, 노른자를 거르는 작업 말이에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게 빵을 만들고, 더불어 봉사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드는 김창동 팀장(퀴즈제조본부 기술개발팀) 아들 ‘도윤’을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한 도옥이는 달걀을 선별하는 작업에 제일 앞에 서서 열심을 보였다.

반죽이 완성된 뒤에는 준비된 빵틀에 조금씩 부어 넣는 작업이 이어졌다. “지금이야, 천천히” 아빠 도현수 팀장(인사팀)의 목소리에 “잠깐 기다려, 여기야?” 딸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바빠 움직이며 대답했다. 행사 내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도현수 팀장은 “평일엔 바빠서 아이들과 놀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주말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특히 봉사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매번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딸아이는 “재밌어요!” 한마디를 던지고는 쪽스러운듯 부리나케 국수 면발을 만드는 테이블로 달려갔다.

빵을 굽는 동안 칼국수의 면발 뽑기가 시작됐다. 반죽이 가락으로 변해서 나오면 테이블에선 면발을 밀가루에 묻혀 가지런히 정리했다. 칼국수와 빵이 완성된 뒤에는 포장에 돌입. 아이부터 어른까지 얼굴에 밀가루가 묻은 줄도 모르고 일회용 용기에 면을 담고, 비닐포장지에 빵을 담았다. 그렇게 원익 가족들은 3인분씩 50개의 칼국수를, 총 150인분의 빵과 칼국수를 맛있게 드실 분들을 상상하며 정성으로 만들었다.





나눌수록 커지는 신기한 행복

12시가 넘을 즈음, 만들기는 끝이 났다. 가족이 함께 만든 빵과 칼국수를 포장하며 죽향(모자원)과 보은 다사랑 요양원에 전해드리며 행사는 마무리됐다. 또한, 남은 빵과 칼국수는 적십자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개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행복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울수록 나누면 더욱 행복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만 되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봉사체험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함께 참여한 이종수 부장(영업팀)은 ‘봉사활동은 곧 행복’이라고, 나아가 ‘참교육’이라며 이번 활동에 만족과 칭찬을 들려줬다.

힘쓰는 일에 가장 앞장서며 해맑은 미소를 띄웠던 김영락 대리(세라믹 기술연구소), 참석자 중 가장 젊은 입사 10개월 차 최희식 사원(인사팀)은 “사회봉사 활동에 처음으로 참여했어요. 일반적인 봉사가 아닌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석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전원에게 만족과 행복을 안겨준 구미적십자나눔터에서의 봉사활동은 끝이 났다. 하지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행복한 미소를 나누며,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원익나눔회’의 활기찬 행보가 다음엔 어떻게 이어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W**

“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만든 빵과 칼국수를 누군가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꼭 같이 와보고 싶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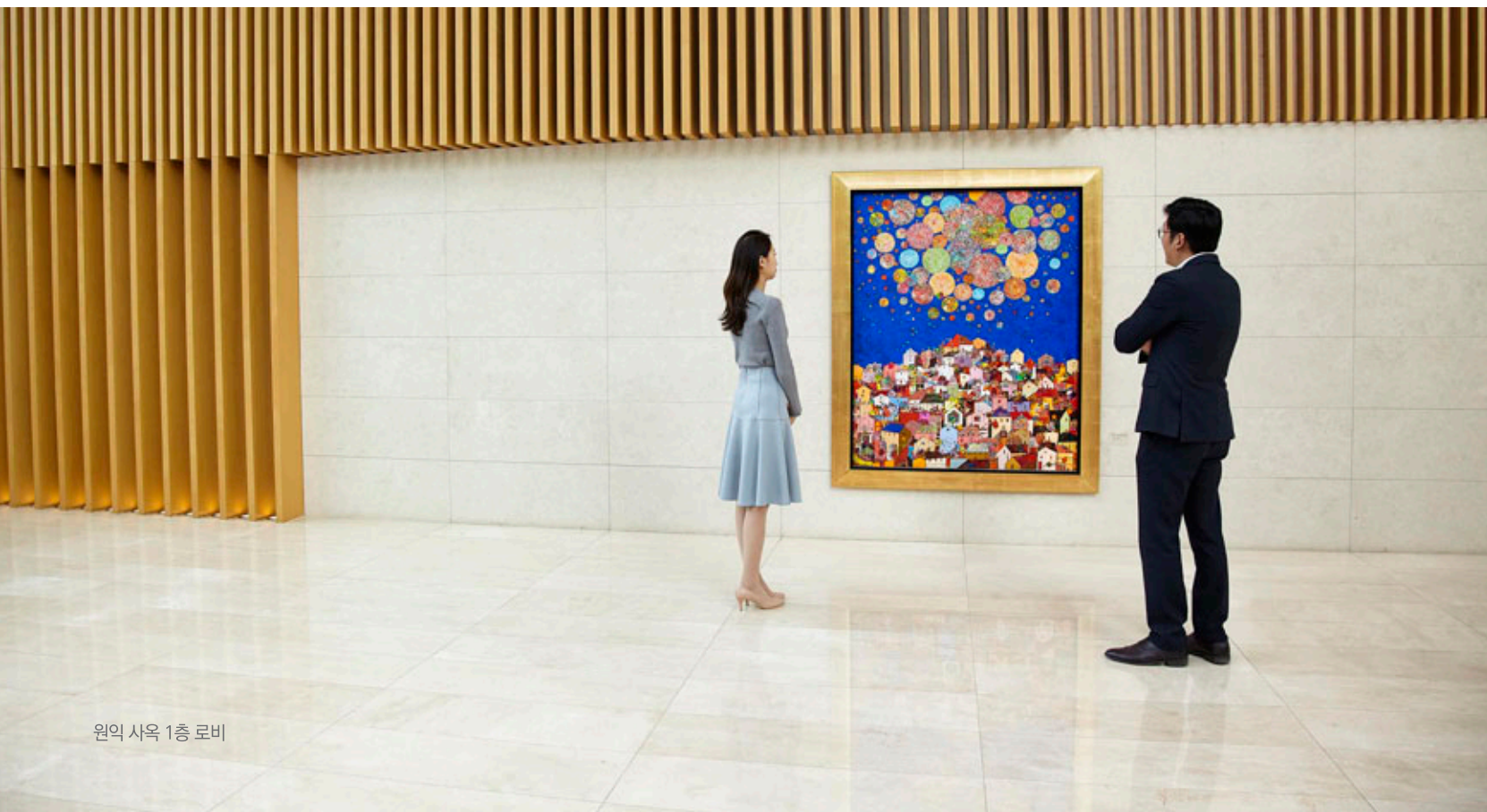
Cite en Fete
장프랑수아 라리유(Jean-Francoise Larrieu)

삶의 기쁨과 환희의 발산

원익 사옥에서 그를 만나다

프랑스 남부지방의 풍경을 고유한 회화 기법과 프랑스 특유의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로 담아내어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상(理想)의 세계를 그리는 프랑스 중견 작가, 장-프랑소와 라리유(Jean François Larrieu) 프랑스 남부의 타르브에서 태어나 고향의 풍경을 고유한 회화기법과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로 담아낸 회화로 명성을 얻었다. 삶의 기쁨과 환희를 발산하는 색채,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몽환적 화풍이 특징이다. 캔버스에 수많은 색을 먼저 칠해 추상적 화면을 구성하는데 마치 벽돌을 쌓아올리듯 최소 네번 이상의 겹칠로 알록달록하게 꾸민다.

생명력 넘치는 작품들로 지금까지 60회 이상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한 작가로 전 세계 수많은 컬렉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불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작년 국내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런 장-프랑소와 라리유(56)의 작품을 우리는 원익 사옥 로비에서 출근길에, 점심 동료를 기다릴때, 업무에 지쳐 리프레쉬가 필요할때 기다란 블루 소파에 기대어 그의 작품으로 위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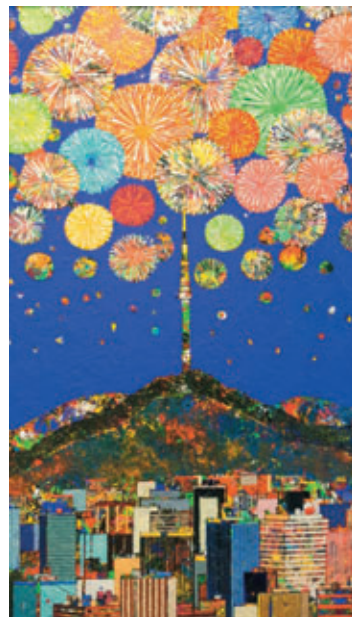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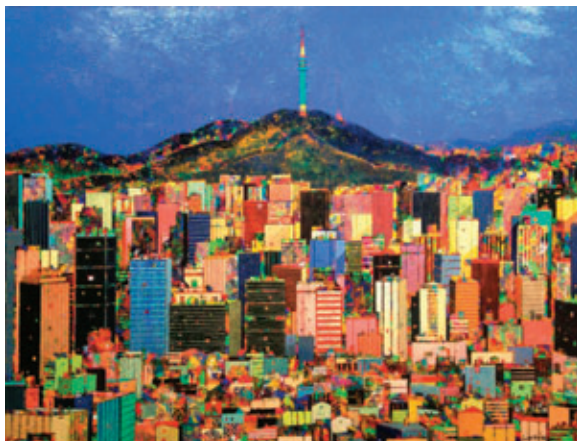




프랑스 보르도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중국 국립박물관, 일본 우에노현대미술관, 스페인 산티아고데카사레스 등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파리 살롱 도톤느 대표를 역임했고 2010년부터 파리 테일러재단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라리유 작품의 주요 모티브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피레네 산맥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피레네 산맥과 대지의 형과 색, 유년기의 추억과 여행에서 주로 영감을 얻어 작업하는 라리유는 다채로운 색과 곡선을 사용하여 건축물과 자연을 캔버스 위에 화사하게 조화시켜 밀집되고 바쁜 도시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작품 전면에 떠다니는 추상적 도형들은 각양각색의 색의 변화와 함께 캔버스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라리유만의 넘치는 색조와 풍부한 화면이라는 고유한 화풍을 형성한다.

서울을 상징하는 N타워, 명동, 불꽃놀이 등을 소재로 역동적인 도심과 남산의 수려한 능선 그리고 서울 메트로폴리탄의 화려한 건축물을 모티프로 외국작가의 눈에 비친 한국의 풍경이 색다르게 다가온다. **W**



NEWS FOCUS

AUTUMN
2017

그룹사별 주요 뉴스 포커스

85

원익홀딩스

IT 시너지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간담회
행복한 회식문화의 시작, 뮤지컬 관람

92

테라세미콘

회의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
테라에 부는 교육의 열기 / 경영 전략 회의 개최
장관상 수상 / 'Morning day'

87

원익아이피에스

2017 SEMICON TAIWAN 참가
법률매거진 / C-LOUNGE
'행복홀씨나눔사업' 원익아이피에스 상 수상
조직문화 혁신TFT 2기 '너나들이'

95

원익

수출팀, Medical Fair Thailand 2017 참가
영업직 Sales교육 시행
원익 공채 4기 채용 설명회 개최

90

원익머트리얼즈

소통의 작은 실현 '너와 나 우리'소통 소모임
'Garden-Y' 오픈

97

원익큐브

9월 전자 불링대회

91

원익큐엔씨

행복관리프로그램 도입
여름 맞이 사진 콘테스트

98

씨엠에스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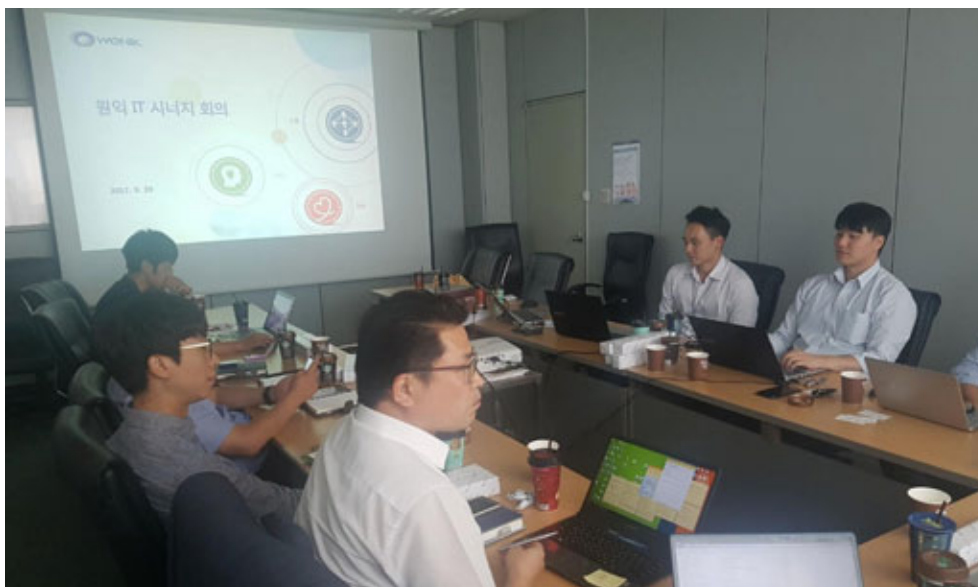
2017 한국피부장벽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스위스킨, 국내 최초 미 '얼타' 전 매장 입점

IT 시너지회의

지난 9월 20일 원익홀딩스에서는 반도체 5개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의 주요 계열사 IT 담당자들의 “IT 시너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16년 1월부터 계열사별로 개최하는 회의체인데, 주요 내용은 계열사 공통 추진사항 리뷰, 정보보안 추진사항, 각 사별 주요 과제 추진현황 등이며 단순한 회의가 아닌 각 계열사 IT 담당자의 열띤 토론과 정보공유의 장이 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외 IT 환경변화와 글로벌 우수사례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어, 원익 그룹 IT 전문역량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네트워크 기술적 글로벌 Trend와 적용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세미나로 시작하였으며, 그룹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깨끗하 Day’ 활동 추진에 따른 각 사별 진행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통제 및 지표관리 그리고 임직원 OA지원 향상을 위한 계열사 통합 전산 소모품(PC 등) 구매 시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보보안과 관련해서는, 내부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방지 및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출력물 보안 체제 추진에 대한 공유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사별로 진행

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계열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과제들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간의 비교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원익의 IT를 총괄하는 이영중 전무는 “금년에 전 계열사들이 많은 업무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IT는 이러한 업무혁신을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반이자 도구인 만큼, IT도 적극적인 IT혁신을 통해 단단하게 갖추어나가야 한다.”며, “특히 원익 IT인력들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낸다면, 반드시 다 함께 상향발전을 통해 우리의 목표인 ‘원익 Smart Workplace’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 점차 성과와 효과도 내고 있다. IT인력들 모두 올 한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어 수고 많은데, 3/4분기 마무리 잘 하고, 추석을 대비하여 민반의 점검과 준비하도록 하자.” 는 총평을 전했다. 다음 IT 시너지회의는 11월에 원익 머트리얼즈에서 진행되며, 정기적인 IT 시너지 회의는 담당자간 정보공유의 차원을 넘어 원익 그룹의 IT 역량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익홀딩스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기회 확대, 협력사 간담회

원익홀딩스가 협력사와의 관계 증진을 이루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평소 소통이 부족한 협력사 인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간담회는 원익홀딩스 인사팀, 제조팀과 주 협력사인 두 업체의 관리직 인원들이 모여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 두 협력업체는 홀딩스에서 각 40명 정도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와 협력업체간의 업무 공유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안건으로 원익홀딩스 근무 환경에 대한 질문에서는, 방진화 건조대 등의 최신 시설이 잘 갖추어 졌다며,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도 배려하는 부분이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또한 두 협력사 모두 소박하게 사내 식당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내렸다. 홀딩스의 자랑거리답게 푸짐

한 메뉴와 맛이 타회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며, 일 때문에 지치다가도 식사 후에는 협력사 직원들이 힘을 내서 다시 일한다고 한다.이외에도, 평소 전하기 힘들었던 건의사항도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입증, 주차 공간, 휴게 공간 증설 등의 요청사항이 나왔으나, 대부분 최근 사업확대에 따른 협력사 인원 증가와 사업장 개선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들로, 인사팀에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각 사는 서로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게 되었으며, 좋은 업무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협력사와 소통 기회 확대와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 해나가는 원익홀딩스가 되길 기대해본다.

행복한 회식문화의 시작, 뮤지컬 관람

원익홀딩스가 즐거운 회식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원익홀딩스 국내영업팀과 해외사업팀이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즐겼다. 업무에 지치고 힘든 직원들을 위해 기분전환 겸 친목도모의 시간을 마련한 것. 이번엔 관람한 뮤지컬은 ‘레베카’인데 명작으로 손꼽히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작품으로, 전처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막심이드 윈터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대저택 만다레이로 돌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각 인물들의

감정변화, 갈등 구조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짜임새 있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력파 배우들의 연기는 극에 더욱 몰입하게 하고 감탄을 불러일으킨다고 평가 되고 있다. 본 뮤지컬은 관람한 국내영업팀 서정원 사원은 “내 인생 첫 뮤지컬이었던 레베카를 회사 팀원들과 같이 보게 되어 즐거웠다”며, “회식을 이런 문화 생활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었던 뿌듯한 경험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해외사업팀 오다혜 사원은 “탄탄한 스토리와 실력파 배우들의 음색과 카리스마가 인상적이었다”며, “국내영업팀과 해외사업팀이 퇴근 후 함께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어 더욱 즐거웠다”는 후기를 전했다. 이처럼 뜨거운 반응속에 향후 원익홀딩스는 직원들의 업무능률과 회사 로열티 향상을 위해, 직원복지를 위해서 문화활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다양한 친목도모 활동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돈독한 원익홀딩스가 되길 바란다.



2017 SEMICON TAIWAN 참가

지난 9월 원익아이피에스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17 SEMICON TAIWAN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SEMICON TAIWAN 참가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으로 해외매출 확대로 힘입어 전적으로 참석을 결정하였다. 전시 기간 동안 대만, 중국 등의 다수의 메모리 제조사에서 우리 부스에 방문하여 원익아이피

에스 설비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기존 Engage 중인 대만 고객사와의 미팅도 이루어져 고객사와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할 수 있었다. 해외영업팀은 일찍이 내년 SEMICON TAIWAN 전시회 참가를 결정하며, 중화권 매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익아이피에스



원익아이피에스 법률매거진

임직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법률상식과 일상에서 유익한 생활법률상식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임직원의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한 수요에 호응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8월 생활법률매거진을 창간하였다. 생활법률매거진은 매달 사회, 정치, 경제, 직무 분야의 법적 이슈를 사례로 접근하고 법규와 판례를 근거로 쟁점의 해결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제공하고 있다. 법률매거진을 발행하는 준법경영팀 김진욱 사원은 “평균 150회의 구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차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세금과 같은 일상 주제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원익아이피에스 C-LOUNGE

C-LOUNGE는 Culture, Change, Communication, Cooperation의 장(場)이 되길 희망하는 뜻에서 명친한 카페형 라운지이다. 높은 천장과 어우러진 나무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바라보는 지중해 풍경이 C-LOUNGE로 직원들의 발길을 이끌며, 사내 '분위

기업!'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직원들이 느꼈을 적막함을 해소하며, 원익아이피에스의 대표 복지시설로 우뚝 서 직원들의 큰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홀씨나눔사업’ 원익아이피에스 상 수상

원익아이피에스는 2015년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 협약(MOU)체결하여 3년째 평택시 진위면 본사 인근 주변 환경 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행복홀씨입양 사업은 회사 인근 인도 1.5KM 구간을 평택시로부터 입양하여 자체적으로 환경조성 활동을 하는 것이다. 원익아이피에스에서는 월 2회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근절에 기여하고, 진위산업단지 환경정화에 솔선수범한 공을 인정받아 평택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현재 원익아이피에스는 입양 구간 외에도 자발적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 깨끗한 산업단지 만들기에 주변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수년째 매월 평택북부노인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나가며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원익아이피에스의 봉사정신이 만들어 흘씨처럼 퍼져나가 인근 기업을 넘어 원익 계열사까지 전달되길 기대해본다.



조직문화 혁신TFT 2기 ‘너나들이’

원익아이피에스의 전사 조직문화를 이끌고 있는 조직문화 혁신 TFT는 1기(행복런닝맨)에 이어 각 본부별로 추천을 받은 Young Board(사원~과장) 중심의 2기(너나들이^{*1})가 출범했다. ‘너나들이’는 ‘같이걷자, 꽃길’이라는 팀의 슬로건아래 직원들의 출근길이 언제나 설렘 수 있도록 조직문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나아가 원익아이피에스의 비전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의 가슴에 원익아이피에스인으로서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PRIDE of WONIK 아이피에스”로 조직문화 비전을 수립하였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직무전문가로서의 자부심’, ‘동료간 존중을 통한 자부심’, ‘원익아이피에스인으로서는 자부심’으로 정하고 각각의 ACTION ITEM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첫 시행된 ITEM으로 ‘창의시

간 20% 프로젝트’는 가장 창의력과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오전시간(08:30~10:00)을 창의시간으로 정하여 하루 근로시간 중 20%는 완전한 몰입을 하자는 프로젝트이다. 창의시간 확보로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주도적 업무 계획과 근무 분위기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시간대에는 회의를 지양하고 있다. 경영진 또한 창의시간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않으며 창의시간 정착화에 함께하고 있다. 작년 조직문화 혁신 TFT 1기(행복런닝맨)가 이룩한 대표 아이템(조은데이^{*2})은 현재 완전히 정착되어 좋은 직장 조건이 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조금이나마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창의시간 20% 프로젝트’도 독려 캠페인과 임직원들의 동참으로 원익아이피에스의 창의와 열정의 기업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1 너나들이**
순우리말로서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는 의미.

***2 조은데이**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하는 날.

원익머트리얼즈

소통의 작은 실현 ‘너와 나 우리’소통 소모임

지난 9월 원익머트리얼즈는 또 다른 소통의 실현을 위한 작은 소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원익머트리얼즈의 소통을 위한 고유 브랜딩인 ‘1박2일’, ‘소통 어디가?’, ‘응답하라 2006’ 등 트렌드에 맞는 모티브를 적용하여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소모임 행사는 각 담당 임원 조직단위로 자유롭게 기획되었으며, 교육 및 세미나 위주로 진행되는 딱딱한 분위기의 행사가 아니라, 공감과 소통 중심의 개성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했던 SCM팀 고경현 과장은 “조직별 소통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모두가 하나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사기 또한 높아졌다.” 고 전했다

이에 회사는 앞으로 직원들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참여형 행사들을 통해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것을 다짐하였다.

‘Garden-Y’ 오픈

원익머트리얼즈의 본점이자, R&D센터 및 프리커서 제조설비를 갖춘 양청사업장에 구내식당인 ‘Garden-Y’가 오픈했다.

현대적인 감각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세련된 인테리어로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Garden-Y’의 오픈식에는 오픈 기념 스페셜 메뉴가 제공되었고, 기념 떡케이크 컷팅식 및 이문용 부회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오픈식에 참석한 구매팀 배민호 대리는 “그동안 사업장 내 임시식당을 이용하고 있어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 멋진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니 더욱 힘이 난다며, 특히 직원 휴게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여 앞으로 자주 이용할 계획이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특히, ‘Garden-Y’에는 라면조리기, 토스트기, 시리얼, 원두커피, 각종 음료 등 직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간식을 상시 비치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편안한 휴게공간 및 배고픔을 달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행복한 개인이 건강한 조직을 만든다

행복관리프로그램 도입

지난 9월, 원익큐엔씨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일환으로 '행복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전문 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원익큐엔씨의 행복관리프로그램은 '마음건강진단→해석상담→심리상담'의 3단계로 진행된다. 9월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이 결과에 대해 전문가가 회사를 방문하여 1대1로 대면 해석상담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Red(심각)군으로 나타난 인원에 대하여는 외부에서 별도로 약 5회의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의 진단결과는 본인과 상담사

외에는 회사 측에도 절대 비밀로 보장된다. 원익큐엔씨의 행복관리프로그램은 직장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사적인 영역까지 개인의 모든 심리적 문제를 포함한다. 이는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임직원들이 마음의 병을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회사의 바람이 담겨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가 스트레스(stress)라고 한다. 행복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적어도 원익큐엔씨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원익큐엔씨

여름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다

여름 맞이 사진 콘테스트

원익큐엔씨는 여름휴가 기간에 즈음하여 사내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여름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원익큐엔씨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여름휴가 전후 약 한달 간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3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자신의 여름나기를 공유해주었으며, 이에 댓글을 달며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내었다. 사진 게시 기간 후 이틀간 사내식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장투표를 실시하였다. 현장투표에는 2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는데, 지리산 천왕봉을 배경으로 찍은 쿼츠제조본부 생산2팀 정수원 기장의 셀카가 41표를 획득하며 1등을 차지했다. 여름휴가 때 나홀로 지리산 무박종주를 다녀왔다는 그의 열정과 웅장한 배경에 많은 동료들이 표를 던졌다. 1등(1명)에게는 즉석사진기, 2등(2명)에게는 스마트폰 포토프린터, 3등(3명)에게는 블루투스 셀카봉이 상품으로 주어졌으며, 사진

을 공유해준 참가자 전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지급하였다. 이번 콘테스트는 사진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사업부와 지역을 불문하고 구성원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첫 사진 콘테스트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원익큐엔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깜짝 사진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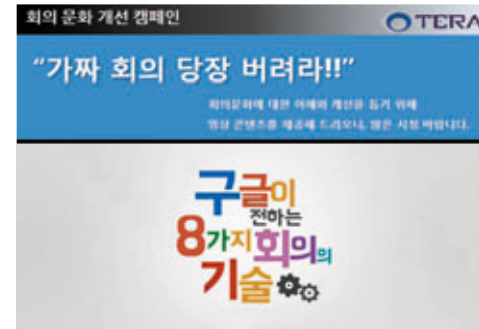


테라세미콘

회의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

즐거운 회의문화 조성은 모든 회사의 염원이다. 테라세미콘 역시 즐겁고 효율적인 회의문화 조성을 위해 9월부터 회의문화 집중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캠페인 진행에 앞서 회의 주최자 및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회의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러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방안의 캠페인을 마련하였다. 첫째로, 유사한 성격의 회의 통폐합 검토를 진행했다. 중복된 내용의 회의 진행을 지양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둘째로, 회의문화 가이드라인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회의실에 비치하였다. 리플렛에는 올바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주최자, 진행자, 참석자가 실천해야 할 행동요령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셋째로, 회의 기본 원칙을 정리한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업무공간 어디에서든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넷째로, 회의문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회의문화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테라세미콘 회의문화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섯째로, 주 1회 다양한 회의문화 관련 영상 콘텐츠를 선별하여 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회의 문화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중 회의문화 개선 캠페인이 결실을 맺어 테라세미콘의 회의시간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



테라에 부는 교육의 열기

테라세미콘의 가을은 교육의 열기로 가득하다. 9월부터 거의 매주 다양한 사내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년 필수로 진행하는 법정교육을 근무지별로 4회 실시했으며, 이 중 안성 사업장에서 진행된 2번의 교육에서는 화성시 주관의 '일가양득'이라는 가족친화경영 주제의 특강이 함께 진행되었다. 본 특강을 통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술교육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진행되었다. 먼저 기술교육 기본과

정은 테라세미콘에 금년에 입사한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회사 제품과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심화과정은 기술부서, CS, 제조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과정으로써 좀 더 전문적인 수준의 기술 학습을 목표로 마련한 교육이다. 특히 이번 기술 교육은 내부에서 추천 받아 전문 사내강사 육성 과정을 이수한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또한, 모든 직장인의 필수 역량인 문서작성 및 기획력 향상 교육이 과장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1일 8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본 교육은 논리적 사고 방법 및 보고서 구성과 표현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업무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단순 강의식이 아닌 사례와 실습 위주로 진행되고, 업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교육이기 때문에 매 차수마다 교육생들이 90%가 넘는 만족도를 표시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영 전략 회의 개최

테라세미콘은 지난 9월 26일 롯데인재개발원에서 2017년 하반기 경영 전략 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영전략회의는 기술본부, 영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소속의 파트장 이상 임직원들이 모여 현재 우리회사에서 중요한 이슈와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향후 테라세미콘이 이를 보완 및 발전시키며 나아갈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 날, 이재경 대표이사

는 “우리 회사의 2차 도약을 위한 좋은 전략들이 많이 나와서 기쁘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전략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 기초 역량을 튼튼히 하여 테라세미콘의 제2 도약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라며 기본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산업통상 장관상 수상

테라세미콘에 두 번째 경사가 발생했다. 지난 7월 박경완 부장이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우수자로 선정되어 산업통상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9월 개최된 제 8회 디스플레이의 날 행사에서 CFO를 맡고 있는 김형석 상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 김형석 상무는 경영혁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해 매출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날 영광스러운 수상을 할 수 있었다. 평소 겸손한 성격인 김형석 상무는 과분한 상이라며 수상소감을 한사코 아꼈지만, 업무 효율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낭비제거와 프로세스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결코 과분한 수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열정 가득한 테라세미콘이기에 다음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벌써 기대되는 바이다.



‘Morning day’ 행사 개최

행복하게 웃으며 출근할 수는 없을까? 테라세미콘은 지난 9월 27일, 조직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행복한 출근길을 선물하는 ‘Morning day’ 행사를 진행했다. ‘Morning day’는 많은 직원들이 아침식사를 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출근 길에 따뜻한 토스트와 커피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특히 커피 홀더에는 최근 테라세미콘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본지키기” 캠페인 내용이 적혀 있어 직원들에게 캠페인 홍보 효과까지 톡톡히 전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본사에는 특별히 푸드트럭을 섭외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방금 조리된 따뜻한 토스트를 전해줄 수 있었다. 각종

풍선 장식과 푸드트럭이 등장한 이색적인 출근길 풍경에 많은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했지만, 이내 토스트와 커피를 건네 받으면 모두 함박웃음을 터트리며 즐거워했다. 인원이 적어 푸드트럭을 섭외하기 어려운 화성, 평택, 둔포, 탕정 site에는 임원 및 인사팀 직원이 방문하여 인근 토스트 업체에 미리 주문해둔 토스트와 커피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한 직원은 “아침부터 배가 고파서 일할 힘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금 만든 따뜻한 토스트와 음료를 대접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감동이었다.”라며 즐거운 후기를 전해 주었다.



원익 수출팀, Medical Fair Thailand 2017 참가

-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우수한 품질로 주목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원익의 제품들이 우수한 품질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원익은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태국 방콕 전시장(Queen Sirikit Nati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제 8회 태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Medical Fair Thailand 2017)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우수한 품질로 주목을 받았다. 태국 방콕 전시장(Queen Sirikit Nati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1만 2,500sqm면적, 40여개 국가에서 700여개 기업이 참여했고, 전시회 기간 중 9만 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중국 168개, 일본 80개, 대만 63개, 태국 52개, 한국 48개로 5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가했고, 그 중 원익은 수출팀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피부미용의료기기 '이노젝터(INNOJECTOR)'와 포터블 엑스레이 '더레이(TheRay)', 복강경 수술기구 '아티센셜(Artisential)'으로 제품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노

젝터는 강력한 공기압을 이용해 주사바늘없이 회오리 형태로 피부속으로 침투하여 진피층의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을 생성시킴으로써 흉터제거, 주름완화, 리프팅, 피부탄력증가 효과를 내는 혁신적인 의료기기이다. 또한 원익 수출팀은 태국 학회가 끝나자마자 인도로 이동하여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 구자라트 아메다바드 전시장에서 진행된 CDCON 2017에 연이어 참가하여 꾸준한 성장세로 의료기기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원익 수출팀 유연성 팀장은 "태국 및 인도의 의료기기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여러 아시아 바이어들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인도의 경우 전시회 후에도 주요 병원을 방문하여 직접 시연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앞으로도 동남아시아지역 진출 및 확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익



원익 영업직 Sales교육 시행

2017년 9월 원익은 영업직군들의 Sales역량 강화 위해 영업직 Sales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으로 사원대리급 및 과장급으로 나뉘어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원대리급 과정은 세일즈 프로세스에 관한 교육으로 고객이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5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상황별 대응전략을 짜는 교육이었다. 과장급 과정은 전략적 협상스

킬 향상에 관한 교육으로 원칙입각형 협상을 통해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여 이해하고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을만한 합의결과를 이끌어 내는 교육이었다. 원익 Surgical팀의 윤우정 사원은 교육 완료 후 “Sales 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여 실전 영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익 공채 4기 채용 설명회 개최



지난 9월 원익그룹 공채 4기 채용 설명회가 서울대,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카이스트에서의 채용설명회는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설명회장 입장 전, 참석명부 기록시 미처 제시간에 입장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설명회 시작을 잠시 연기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벤트로 준비한 경품 추첨을 위해 ‘미래에 도전하라!’는 컨셉으로 최후 3인의 ‘뒤돌아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진행하여 전형적인 설명회가 아닌 평소 원익그룹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채용 설명회를 찾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성원으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채용설명회로 원익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더불어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입사를 기대해본다.

9월 전사 볼링대회

쌀쌀한 가을에 접어드는 9월, 원익큐브 3분기 전사행사 시즌이 다가왔다. 서현역 근처의 볼링장을 대관하여 판교 본사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총 12개의 레인에 3~4명이 한 팀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였다. 팀 별로 총 2게임을 진행하였고, 게임 별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 점 평균을 기준으로 합이 가장 큰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구력이 프로수준인 직원부터 볼링공을 당일 처음 잡아본 직원까지 실력은 다양하였지만, 서로 노하

우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게임을 진행하였다. 옆 조의 점수를 역전할 때의 짜릿함은 말로 이룰 수 없었다. 치킨과 피자, 맥주 등 저녁식사와 함께한 행사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고 게임이 끝난 후 직원들은 모두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12위부터 거꾸로 순위가 발표될 때 마다 직원들의 탄식과 환호는 끊이지 않았고, 1위~3위 팀은 오영신 대표가 직접 시상하는 것을 끝으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원익큐브



씨엠에스랩

씨엠에스랩, 2017년 한국피부장벽학회 제23차 추계학술대회 참가

약 300명의 국내외 피부과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셀퓨전씨의 독자 특허 물질 NEO-CMSTM*의 피부장벽 강화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해

씨엠에스랩이 지난 9월 1일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한 <2017년 한국피부장벽학회 제23차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씨엠에스랩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The Clinical Studies on Recovery of Skin Barrier Function and Promotion of Epidermal Turnover Time in NEO-CMSTM*> 라는 주제로, 씨엠에스랩 R&D 센터장인 홍승기 상무와 이민혜 대리가 참석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던 자사 대표 브랜드인 셀퓨전씨의 독자 특허 물질 NEO-CMSTM*의 피부장벽 강화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중 유일하게 병원 소속의 피부전문가가 아닌 기업 내 연구기관 소속의 피부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서 화제를 모았다. 씨엠에스랩의 R&D 센터장인 홍승기 상무는 “피부과학 분야에 저명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씨엠에스랩의 독자적인 기술

력,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검증,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NEO-CMSTM 이 함유된 자사 제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구두발표, 학회지 등의 형태로 학술 활동 진행해 자사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재고 하고 제품 철학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피부장벽학회에서 주최하는 23번째 학술대회로, 약 300여명의 국내외 피부과학 분야에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에 최신지견을 발표하는 연구학술논문들로 각 분야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NEO CMSTM : 피부지질 조성을 모사한 피부장벽 개선 Biomimetic-SLM (Swelling Lipid Matrix) 피부 전달 기술을 이용한 Core-shell capsule 특허 (등록번호: 특허 10-1752312호)

